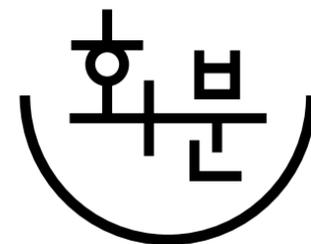


HCF MAGAZINE



2020 MAY & JUNE



COVER STORY

궁평아트뮤지엄아카이브의 작업실.

백영철 작가의 개인 작업실이자 다양한 예술인의 전시 공간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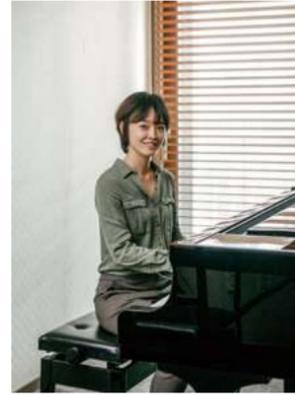
CONTENTS

THE 담다

예술을 담다



04 PIECE
화성의 한 조각



10 INTERVIEW
피아니스트 다움

16 COLUMN
코로나 시대의 공연예술

20 TREND
공연계에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

24 LIVE
설치 작가 석동미

THE 가다

공간을 가다

THE 하다

함께 하다



30 WALK
유동성의 세계

34 FEATURE
방구석 문화 데이트

40 TICKET
문화!수목금토일

42 SKETCH
화성 전곡향

44 CHECK
오로지 나를 위한 다디단 코스



48 HELLO
화성시문화재단 박진영 과장

52 PLAY
집에서 제대로 즐기는 방법

56 LIST
어느 시인과 쌓은 책 기둥

60 PEOPLE
화성인의 대답 화성인의 그림

64 CULTURE & ISSUE
5·6월 문화소식

68 LETTER
화성시문화재단이 전하는 이야기

70 REVIEW
편집후기

71 PLACE
배포처

HOME

이번 호는 자신의 공간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과 그들이 생활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He is happiest, be he king or peasant,
who finds peace in his home

왕이건 농부건 자신의 집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 Johann Wolfgang von Goe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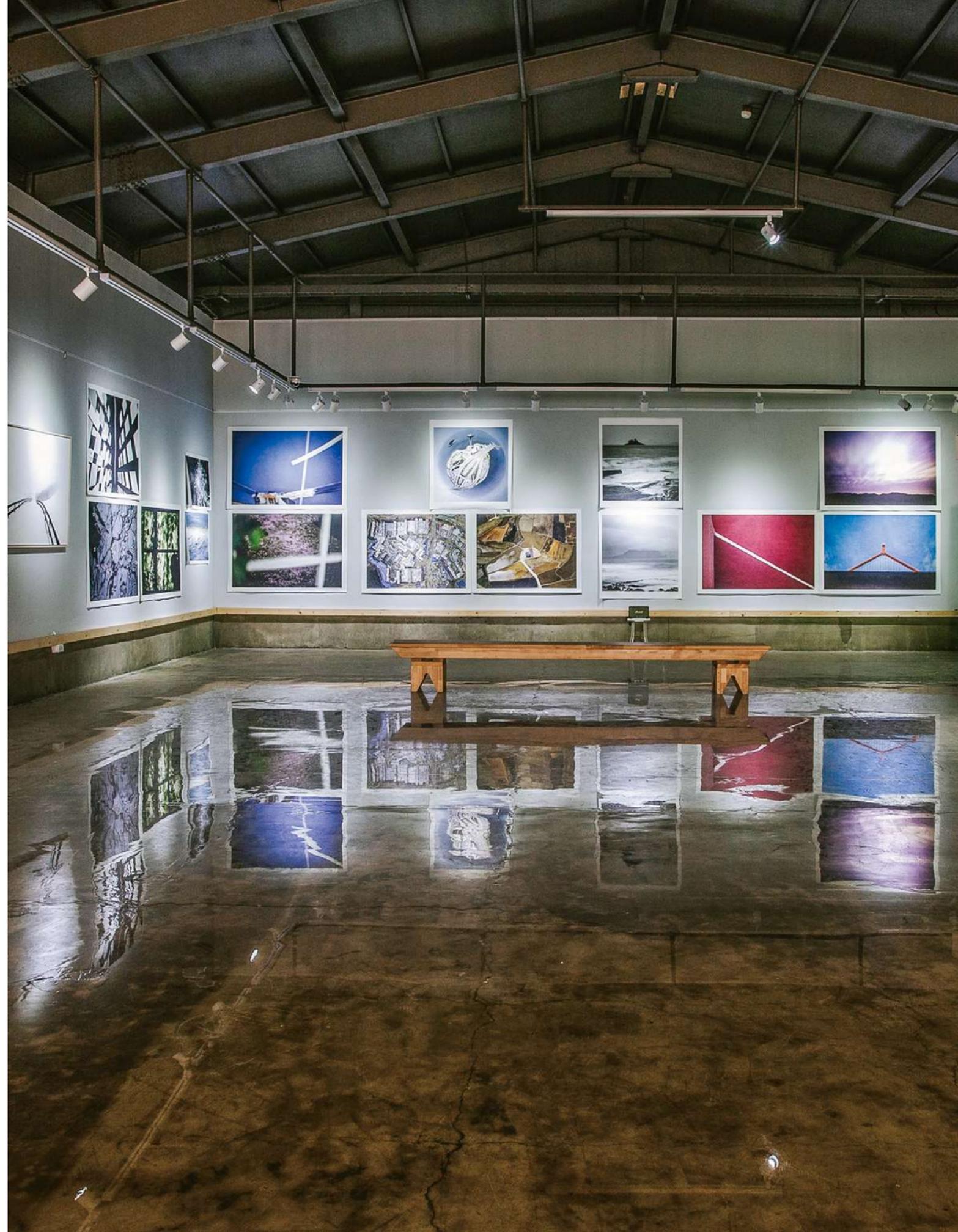


공평아트뮤지엄아카이브
A.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공평항로 1633

에디터 김재은 사진 강형우



화성의 한 조각



디지털 한지 위에 사진 작업을 하는 백영철 작가



THE 담다

INTERVIEW

피아니스트
다음

COLUMN

코로나 시대의
공연예술

TREND

공연예술계에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

LIVE

설치 작가
석동미

열 손가락이 이끄는 대로 피아니스트 다음

인터뷰 전, 재즈에 대해 떠올린 거라곤 건반 위를 자유로이 누비는 열 손가락과 서로 눈 맞춤하며 싱긋 웃는 연주자들의 얼굴뿐이었다. 다음과 만난 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자유로움이 실은 충실하고 충분한 연습에서 나온다는 것, 재즈는 하나의 장르라기보다 연주자의 손끝에서 창작되는 선율 그 자체라는 것이다.

글 이다은 사진 강현욱

“남들보다 창작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예술을 하고, 그중에서도 욕구가 더 강한 사람들이 재즈라는 이름 안에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재즈는 창작의 궁극처럼 느껴져요.”

축하드려요! 'Introvertie-다음 트리오 재즈공연'으로 2020 화성 시문화재단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셨죠. 지원하신 계기가 있나요?

2018년 한국에 들어와서 작년에 앨범을 발매했어요. 앨범을 내자마자 열심히 활동하고 싶었는데 좋은 공연을 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공연은 음악적인 제약이 없고 좋은 울림이 있는 공간에서 준비된 관객과 만나는 것인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차에 주위 분들이 이 공모를 추천해 주셨어요. 올해 안에 화성시에서 3회 공연을 하겠다고, 요령 없이 하고 싶은 말을 써 내려갔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제안한 내용 그대로 승인해 주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면접 심의가 영상 자료와 유선 통화로 이루어졌다고요.

2월 말에 서류 제출하고 며칠 후에 면접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한 달 반 정도 미뤄진 것 같아요. 면접 준비하면서 영상 편집을 처음 해봤어요(웃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심사위원 앞에서 긴장하는 것보다 충분히 준비해서 촬영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유리했던 것 같아요. 혼자 카메라 보고 말하는 게 좀 어색하긴 했지만 이상하면 다시 할 수 있으니까요. 전화 면접 때는 좀 긴장되더라고요.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다행히 결과가 잘 나왔어요.

아직 밖에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집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합주나 레슨 이외에 혼자 하는 연습은 집에서 하고 있어요. 음악가에게는 공연도 있고 레슨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연습이잖아요. 일정한 일과를 반복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오전은 여유롭게 보내

는 걸 좋아해서 1시간 정도 손 푸는 연습을 해요. 점심 후부터 해가 떠 있는 동안엔 꼭 해야 하는 연습을 끝내죠. 저녁에는 좀더 좋아하는 걸 연습하고 싶어요. 남은 시간에는 공부하거나 책 읽거나 운동하고, 그렇게 지내요.

어린 시절부터 악기를 연주했다고 들었어요.

부모님이 음악을 좋아하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음악과 가까이 지냈어요. 어머니는 결혼 전에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어서 돈을 모아 피아노를 사셨대요. 아기 때부터 집에 피아노가 있어서 악보 보는 법이나 간단한 것들은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바이올린도 권유해서 두 가지 악기를 병행하면서 자랐죠. 시작은 어머니 때문이었지만 하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가끔 연습하기 싫다고 말하면 어머니는 “하기 싫으면 그만둬도 돼.” 하셨어요. 그럼 저는 “아니 그 말이 아닌데...” 하고 울면서 주섬주섬 가방 챙겨서 나왔어요. 저는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라 단지 ‘오늘의 연습’이 하기 싫었던 거거든요. 어머니가 참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조련이라고 하나 봐요(웃음). 어릴 때 어떤 아이였어요?

제 앨범명 [Introvertie]가 ‘내성적인’이라는 뜻인데요, 어릴 땐 정말 사회성이 떨어졌어요. 친구와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하고 뭔가 주어지면 거기에만 몰두했어요. 다행히 자라면서 그런 성향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음악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저한테 스케치북을 하나 쥐여주시면 한 자리에 앉아서 스케치북을 다 넘길 때까지 그림을 그리다가 너무 집중해서 오줌을 싸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웃음)?

독특한 아이였네요(웃음).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나서 뒤늦게 재즈를 시작했다고요. 어떤 매력에 끌렸나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재즈는 어떤 장르라기보다는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방식이에요. 재즈 연주자들은 작곡가가 표현하는 방식과 연주자가 표현하는 방식을 모두 아울러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재즈 연주자는 자기가 쓴 곡을 연주해요. 남의 곡이라도 즉흥 연주를 하니깐 그것도 하나의 작곡이라고 볼 수 있죠. 학교 다니면서 클래식 작곡을 할 때는 직접 쓴 곡을 연주자들에게 줄 때도, 남의 곡을 연주할 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재즈는 그 부분을 충족해 주는 음악이에요. 음악 하는 데 제약이 없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남들보다 창작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예술을 하고, 그중에서도 욕구가 더 강한 사람들이 재즈라는 이름 안에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재즈는 창작의 궁극처럼 느껴져요.

창작 욕구를 따라 재즈로 옮겨간 거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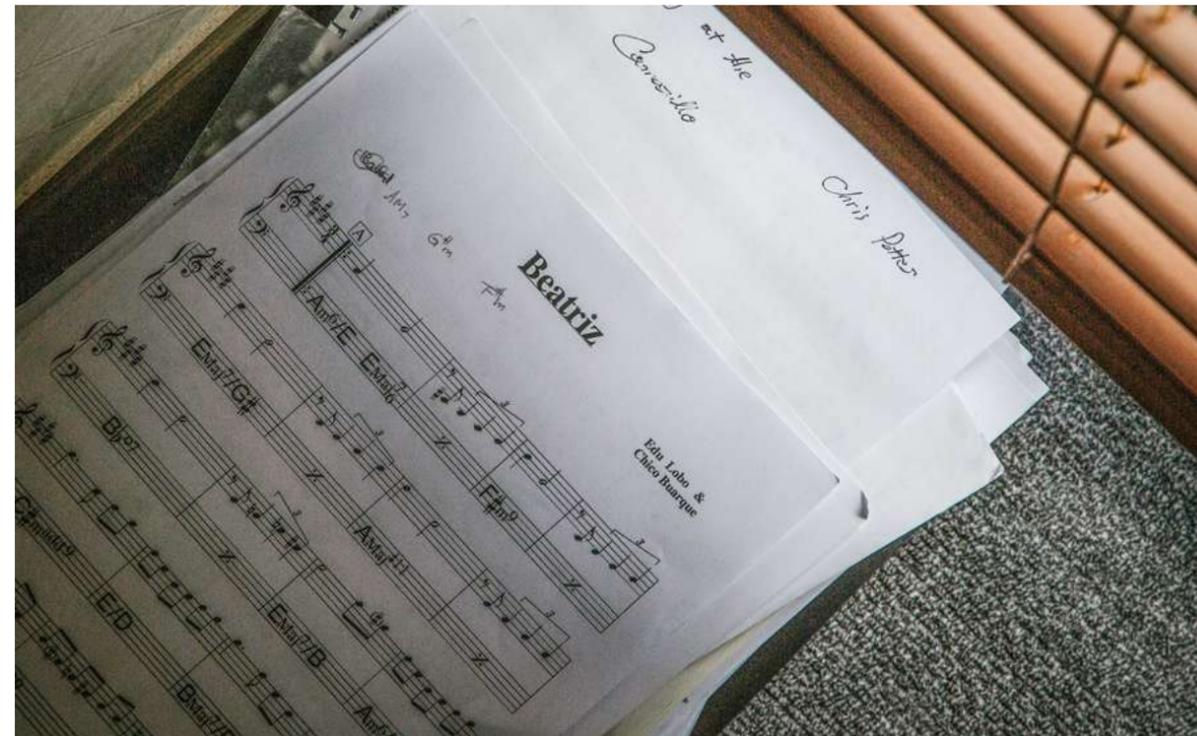
옮겨 갔다고는 클래식에서 배운 내용과 재즈를 접하면서 습득한 것들을 합쳐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제 음악 세계를 설득력 있게, 견고하게 만들어 가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렇지만 스스로 음악가로서의 위치를 파악해야 하니깐 좋은 재즈 음악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려움은 없었나요?

연주자들 간의 호흡 방식이요. 클래식 앙상블에서는 비트보다는 서로의 소리와 호흡을 듣고 가요. 제가 1, 2, 3, 4로 간다고 해도 옆 사람이 중간에 다른 호흡으로 들어온다면 같이 맞춰야 하죠. 재즈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클래식보다 비트가 일정하게 가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좀 음악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숙련되지 않은 연주자와 합주할 때는 소리를 안 듣고 너무 칼박으로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박자감이 정확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서로의 소리를 더 들어주는 사람과의 호흡이 아직까지는 저에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은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죠.

반대로 더 유리한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빌 에반스Bill Evans나 키스 자렛Keith Jarrett처럼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두 재즈 피아니스트 모두 좋은 클래식 연주자였어요. 그런 걸 보면 클래식 이력이 절대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한 어려움도 클래식과 재즈의 차이에서 온 게 아니라 재즈를 늦게 접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 두 사람은 10대 초반에 시작한 반면 저는 20대 중반에 시작했으니까요.



어디선가 재즈는 곡 자체보다 연주하는 사람의 감각과 표현력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말을 보고, 무척 자유롭지만 그만큼 연주자의 책임감이 따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음악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클래식 곡도 연주자의 해석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이 나오니까요. 자유로움과 책임감이 따르는 지점이 다른 것 같아요. 클래식에서는 내 마음대로 노트를 바꾸거나 틀리면 안 돼요. 재즈는 연주자가 노트 자체를 선택한다는 면에서는 자유롭지만 그만큼 화성과 리듬, 음형이나 선율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해야 해요. 연주자의 음악성과 기술적인 능력, 화성에 대한 이해도가 바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어떤 예술이든 요구되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연주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언지 궁금해요.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솔직하게 연주하는 것.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하게 현란한 연주를 하지 않고 제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거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무대에 서면 잘하고 싶잖아요. 연습량 이상을 보여

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연주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려고 노력 중인데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웃음).

영화에서 보면 연주자들이 단상도 없는 작은 바에서 관객과 마주 보며 연주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관객과 어떻게 소통하려고 하나요?

완성도 있는 연주와 준비된 관객이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쌍방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걸로 봤을 때 시골벽적하다고 무조건 소통이 잘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어도 전달되는 게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음악적으로 더 머물도록 노력하는 것까지고, 그다음엔 관객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재즈에 대해 알건 모르건 들으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맞아요. 얼마 전에는 클럽에서 연주를 하는데 바로 앞자리에 앉아 계신 관객분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대화하시는 거예요. 걸로는 그런 모습이 자유롭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자유롭게 연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물론 이런 분위기를 선호하는 연주자도 있겠지만요. 그때 '내 연주가 아직 설득력이 없구나.' 하고 속상했죠.



한 명의 관객으로서 저도 꼭 새겨 뒀어주세요. 다음 트리오 이야기를 해볼게요. 프랑스 현지에서 원년 멤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귀국 후에 멤버를 새로 구성한 건가요?

네. 프랑스에 거의 10년 정도 살면서 학생 때는 공부하고 이후에는 공연하고 그랬어요. 앨범 녹음도 현지 멤버들과 했고요. 국내에서도 새로운 팀을 결성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앨범을 현지 멤버들과 녹음했기 때문에 팀 체제까지 요구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객원 형태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함께 하는 콘트라베이스스트와 드러머는 제가 지인을 통해 먼저 연락한 분들이예요. 귀국 무렵에 한국 음악가들을 잘 몰라서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호감 가는 분 중에서 연락을 드렸죠. 제 음악을 보내드리고 다행히 좋다고 하셔서 함께하게 됐어요.

연주자 간에 신뢰가 있어야 완성도 있는 음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신뢰를 어떻게 다져가나요?

재즈 뮤지션들은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거예요. 연주자 간의 신뢰는 함께하는 세월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주 자체를 인정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려면 먼저 스스로 자기 연주를 받아들여야 해요. 자기 연주가 맘에 안 들면 상대방을 탓하게 되거든요.

음악 활동 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없어요?

다행히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있어요. 좋은 공연을 하고 싶은 것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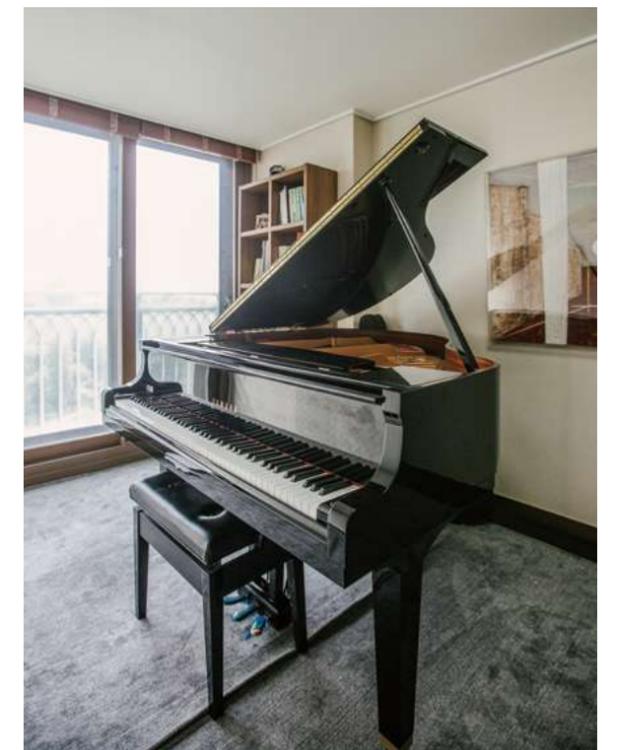
에 그냥 제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런 항상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재즈 외의 장르의 도전해보고 싶기도 한가요?

꼭 하고 싶다가보다는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분야에서 잘하는 걸 해야지, 괜히 다른 걸 건드렸다가 결과물도 별로고 그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드릴 것 같아 우려되는 마음도 있어요. “절대 안 해!” 이걸 아니고요(웃음). 예전에 드라마 음악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연주자의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되었어요. ‘이 곡 내가 연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 장면엔 이런 느낌의 곡을 너무 길지 않게 이런 악기를 써서 만들어 달라는 디테일한 요구가 있죠. 그걸 만드는 건 다른 재능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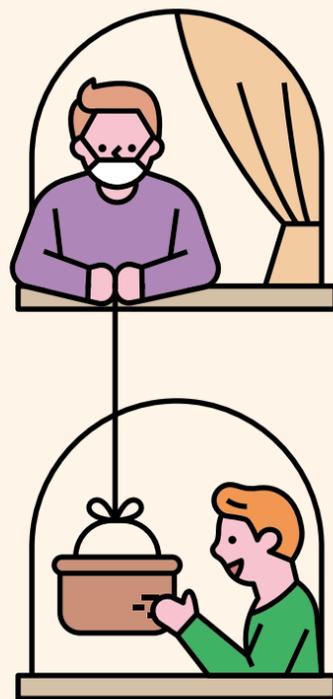
구체적인 계획보다 큰 그림만 그려놓고 그때그때 하는 편이어서 일단 이런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나가고 싶어요. 지원금이 나오면 대관부터 홍보, 기획까지 직접 해야 해요. 재즈 공연은 원래 작곡가가 연주자와 공연 기획자 역할도 하거든요. 해오던 일이라서 크게 부담은 없지만, 3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조금은 걱정돼요. 첫 공연을 7월로 계획 중인데, 할 일이 많네요(웃음).



코로나 시대의 공연예술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속에서 공연예술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종식되고, 공연은 계속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19를 염원하는 공연예술계의 청사진을 그려본다.

글 민용준 칼럼니스트



전화를 받았다. 지난해부터 진행과 해설을 맡고 있는 덕수궁 <석조전 음악회>에 기획·협력하는 금호아시아문화재단 관계자에게 걸려온 전화였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지난 3월에 시작될 예정이던 음악회는 코로나19의 유행과 함께 4월 일정까지 취소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번 통화로 5월 일정 또한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이 더해졌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당연한 선택이었지만 시절이 야속한 건 어쩔 수 없었다. 꽃이 피고 잎이 돋는 봄이 왔건만, 문화예술계는 여전히 병축한 계절을 지나는 중이다.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찾아온 뜻밖의 겨울, 공연예술계의 시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 보인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취소되거나 연기된 현장 예술 행사는 2,500여 건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523억 원에 육박한다.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의 집계를 보자면 비교적 코로나19의 영향이 덜하던 1월에는 7,500여 회에 달한 상연 횟수가 4월에는 1,800여 회 수준으로 감소했다. 380억 원 이상을 기록한 1월 매출액이 4월에는 36억 원대로 뚝 떨어졌다.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단기적인 금전적 손실로 치부하기엔 낙폭이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2월에 진행하려 한 공연은 4~5월경으로 밀렸는데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라 결국 늦은 하반기로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어요. 사실상 상반기 공연은 거의 계획하지 않는 상황이죠.” 모 공연기획자의 말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연 일정은 표류하는 중이다. 국립극장을 비롯한 국립 공연기관을 필두로 공연장의 대부분이 잠정적인 휴관 상태를 이어가며 문을 걸어 잠갔다. 부득이하게 공연을 이어간다고 해도 관객과 관객 사이에 빈자리를 두고 간격을 유지하는 거리두기 좌석제를 운영하는 만큼 기본적인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다. 동시에 감염에 위협을 느끼는 관객이 공연장을 찾는 데 부담을 느껴 객석을 채우기도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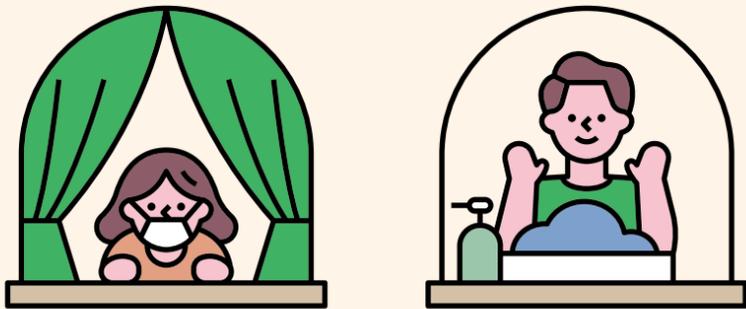
“대부분의 회사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돌아가면서 무급 휴가를 쓰고 있어요. 상반기 공연이 현저히 적어 회사 수익이 없는 상황이라, 일단 하반기 공연을 진행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텨보자는 분위기예요.” 공연예술과 관련된 회사 대부분의 상반기 수익은 전무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사태가 진정될 것을 기대하며 하반기 공연을 준비한다. 예정돼 있는 하반기 일정에 연기된 상반기 일정을 덧대며 복잡하게 엮일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수나 연예인 등의 공연 출연자들에게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심지어 예정된 기간에 공연이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출은 여러모로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국가 간 장벽 또한 공연예술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싱가포르, 일본, 필리핀 같은 나라를 거친 투어 일정의 일환으로, 영국 공연팀의 내한 공연을 준비 중이었어요. 이럴 경우 항공권이나 물류에 대한 부담감을 각국의 공연 수입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 금지령을 내린 나라에서 공연이 불가능해지면서 온전히 한국에서만 공연 개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즉, 이 공연을 성사시키려면 한국 회사에서 모든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수익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설블리 선택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해외공연팀의 내한이나 국내공연팀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에이전트 업무를 하는 김지은 공연기획자의 말이다.

외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의 자가격리 기간 또한 내한 공연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제작사가 지불해야 하는 체류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발생하는 비용은 공연 수익에 대한 부담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3일에 재개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월드투어 공연은 4월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배우가 생겨나면서 공연이 중단된 바 있다. 관객이 급감하고 수익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해외 사정을 고려할 때 내한 공연을 쉽게 진행할 수 없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생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내한 공연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투어를 계획하던 국내 아티스트나 공연 단체의 청사진도 흐려진 상황이다. 세계 최고의 공연 페스티벌로 꼽히는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올해 8월로 예정된 개최를 일찌감치 취소했다. 독일의 오페라 축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도, 프랑스의 연극 축제 <아비뇽 페스티벌>도 올해에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국내 공연이 평균적으로 10개 이상은 됐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지원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렇듯 국제적인 공연예술제가 모두 취소되면서 해당 페스티벌에 출품 계획을 세우고 있던 국내 예술가들의 상실감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공연을 기획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그만큼 수입원이 사라진 셈이기도 해서 타격이 만만치 않게 느껴지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김지은 공연기획자의 말이다.

사실 무대의 시계가 멈춘 건 한국뿐만이 아니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브로드웨이도, 영국의 웨스트엔드도 현재는 문을 걸어 잠근 상태다. 공연이 멈춘 건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해외 공연 기획사들도 무급 휴직의 고통 부담을 나누기도 하고, 폐업의 기로에 서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 가운데 공연의 시계를 돌리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홀은 이 시기를 오히려 마케팅 기간으로 삼고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을 자신들의 디지털 콘서트홀이라 명명하며 공연을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 달 동안 무료로 제공하는 거죠. 원래 베를린 필하모닉은 한화로 14만 원 정도를 지불하면 1년간 시청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정액권을 판매해 왔어요.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무료로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유료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을 거란 기대심리가 느껴져요.” 금호아시아문화재단 음악사업팀 이지영 과장의 설명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 공연 문화가 주춤하는 상황 속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공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환기시키고, 새로운 공연 수익을 창출해 내는 움직임도 대두되고 있다. 동시에 공연을 지속하게 만들어준 팬들을 위해 카메라 앞에 나타나 전 세계 방구석 1열에 아름다운 시간을 선사하는 예술가들도 등장했다. 지난 4월 26일 유튜브 생중계로 단독 리사이틀을 펼친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를 시청한 실시간 접속자 수는 4만 6천여 명에 달했고, 조회 수는 20만 건이 넘었다. 비록 공연장에 갈 순 없지만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관객의 욕구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것이 오히려 선명하게 전해진다.

“외국 관계자들은 자국에서 언제 공연을 재개할지 기약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외국에 비하면 한국은 점점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김지은 공연기획자의 말처럼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유행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국립극장을 비롯한 몇몇 공연장들이 조심스럽게 공연 재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지영 과장의 말에 따르면 금호아트홀 연세 역시 오는 6월부터 공연을 재개할 예정이다.

“관객의 관람 욕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활동하는 국내 음악가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이들과 함께 뭔가 특별한 음악회를 기획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고민 중이에요.” 공연예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추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동시에 역설적인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 만날 수 없는 시대일수록 만나고 싶다는 욕구는 간절할 수밖에 없다. 무대와 객석의 거리감이 어느 때보다 먼 시기인 동시에 무대에 대한 갈증 역시 어느 때보다 큰 시절이다. 결국 지금 우리는 소중한 무언가를 빼앗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무언가를 절실히 깨닫는 순간을 지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코로나 시대의 역설이랄까.

민용준 칼럼니스트
 <무비스트>, <비온드>, <엘르>, <에스콰이어>에서 기자로 일하며 영화 및 대중문화,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칼럼을 쓰고, 저명인사를 인터뷰했다. 현재에는 영화 및 대중문화 칼럼니스트로서 다양한 매체에 기고하며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덕수궁 <석조전 음악회> 진행과 해설도 맡고 있다.

Show Must Go Online! 공연예술계에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

올봄, 결국 열심히 준비한 공연들이 막을 올리지 못했다. 관객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왔을 출연진과 스태프에게, 그리고 좋은 작품을 만나길 기대하던 관객에게도 아쉬운 일이다. 비록 공연장의 문은 굳게 닫혔지만, 공연예술계는 온라인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글 차영은(기획홍보팀)

방구석 1열에서 즐기는 무료 라이브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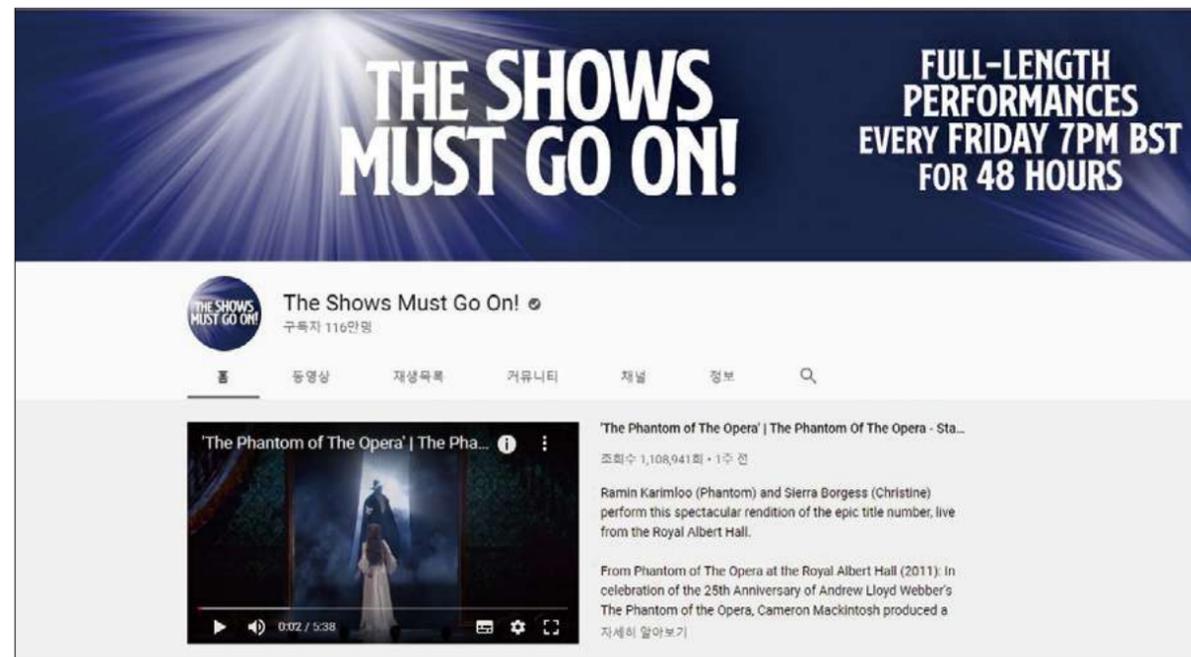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이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예정된 공연들이 줄지어 무기한 연기 혹은 취소되었다. 지금까지 장기간 공연이 개막하기 전, 일부 장면들을 선보이는 프레스콜 라이브를 제외하고는 고화질, 고음질로 제작되어 집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 극히 일부였다. 그러나 공연장 문이 닫히면서 공연예술계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그동안 준비해 온 무대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국립극장의 창극 <패왕별희>, 세종문화회관의 <힘내라 콘서트> 시리즈, 국립극단의 <페스트> 등 다양한 공공기관 공연장에서 여러 장르의 온라인 상영회를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작품은 대부분 단발성 라이브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기아트센터의 유튜브 채널 '갭! tv 경기아트센터'에서는 경기도립극단의 연극 <브라보 엄사장> 전막 공연을 기간 제한 없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이 작품은 박근형 연출의 '엄사장 시리즈'로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그린 블랙 코미디다. LG아트센터 또한 세계적인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컴 온CoM+On, CoMPAS Online' 서비스를 런칭했다. 5월 8일부터 두 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무료로 중계되며 매튜 본의 댄스 뮤지컬 <백조의 호수>, 아크람 칸이 안무한 잉글리쉬 내셔널 발레단의 <지젤> 등을 LG아트센터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TV, 그리고 LG U+tv, U+tv 모바일을 통해 볼 수 있다.



© LG아트센터

**랜선으로 떠나는
해외 공연 여행**

뮤지컬의 본고장, 영국 웨스트엔드와 미국 브로드웨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극장 관계자와 몇몇 배우가 감염으로 격리되면서 전례 없는 장기간 섯다운을 강행했다. 이곳의 공연장 섯다운으로 세계 곳곳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Show Must Go On”에서 “Show Must Go Online”을 외치고 있는 것. 해외 고품질 공연 영상들이 공개됨에 따라, 랜선으로 프리미엄 공연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SNS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이벤트를 선보인 뮤지컬의 거장,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유튜브에 ‘The Shows Must Go On!’ 채널을 오픈하고 매주 금요일, 자신의 작품을 공개했다. 코로나19로 공연장을 찾기 힘든 전 세계 뮤지컬 애호가를 위해 마련한 이벤트다. 이 채널의 첫 작품으로 뮤지컬 <요셉과 놀라운 색동옷>, 그의 대표작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공개했다. 또 코로나19 캠페인 ‘Stay Home #Withme’에 참여해 영국과 미국의 공연 단체에 기부를 독려하기도 했다.



© The Shows Must Go On!

영국 국립극장은 우수 연극 공연 실황을 영상으로 제작한 NT 라이브 작품을 유튜브를 통해 4월 한 달간 매주 1편씩 선보였다. 2011~2012년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해 흥행한 코미디 연극 <한 남자와 두 주인>, 살럿 브론테의 소설 원작이자 배우 매들린 워렐이 주연을 맡은 연극 <제인 에어>,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보물섬>과 <심이야>를 중계했다. 이제 연극, 뮤지컬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다. 독일의 베를린 필하모닉이 4월 공연 일정을 취소하면서 ‘디지털 콘서트홀’을 4월 한 달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진행한 약 600여 편의 공연을 온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다. 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 등록 없이 ‘Watch now’만 클릭하면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카르멘>을 시작으로 <라 보엠>, <일트로바토레>, <라 트라비아타> 등 세계적인 오페라 작품들을 선보였다. 중부 유럽을 대표하는 빈 국립 오페라극장도 무료 공연 영상 서비스를 시작하며, 바그너와 푸치니 등의 오페라 영상을 24시간 무료 제공했다.

**온라인 공연,
자유로운 관람료 기부와
함께**

해외 작품의 라이브 스트리밍에는 기부 페이지가 함께 기재된 곳이 많다. 무료로 좋은 작품을 공개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도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예술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을 온라인 관객의 자율적 기부로 알고 있다. 브로드웨이의 대표 스타들이 온라인을 통해 공연한 <디즈니 온 브로드웨이 25주년 기념 콘서트>는 공연 기부 수익 일부를 후천 면역결핍증HIV/AIDS 인식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인을 위해 재정 지원, 건강보험, 상담 등 긴급 지원에도 기부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다르게 국내 예술가들은 어려운 상황 속 국가 지원금에만 기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도 온라인 기부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 예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예술인을 돕기 위해 시작한 ‘예술나무로 다시, 봄!(코로나19 모금 캠페인)’이 있다. 어려움을 겪는 전업 예술가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돈화문국악당이 기획한 온라인 공연 <링크LINK>와 연계하며 자발적인 관람료 후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돈화문국악당



다시 꿈을 이야기하는 일 설치 작가 석동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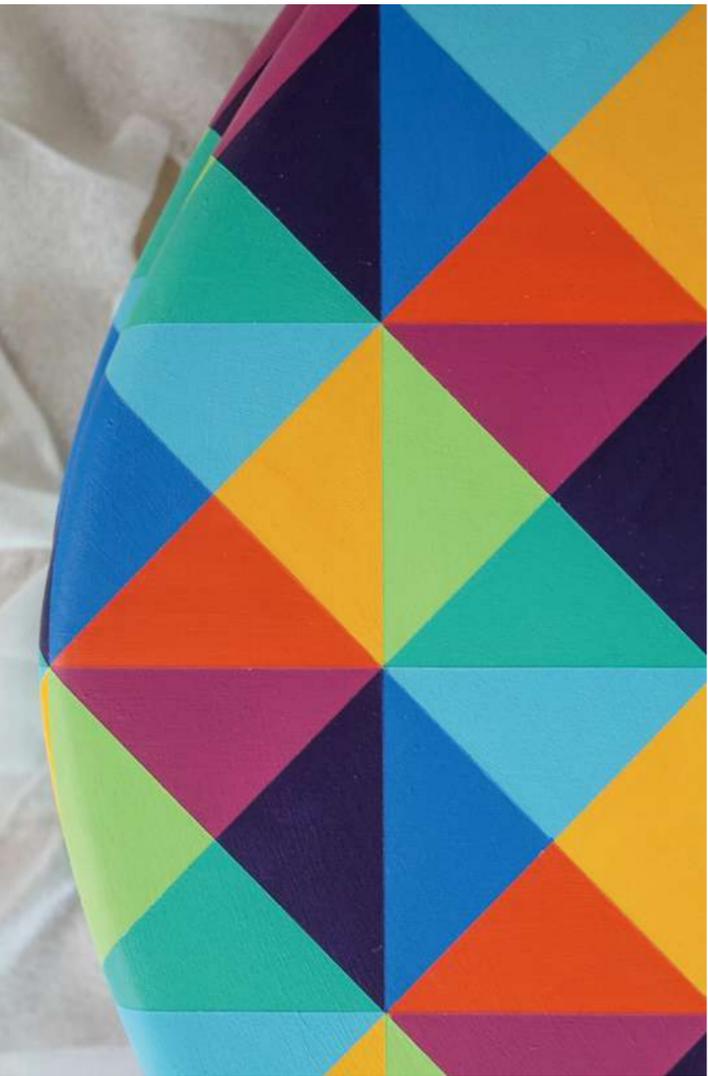
추억과 꿈. 과거와 미래. 지나간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단어가 하나의 오브제에 담겼다. 석동미 작가의 '부메랑' 안에서다. 그녀는 10년간의 공백을 깨고 자신의 추억과 꿈이 담긴 부메랑을 만들었다. 그녀가 던진 부메랑은 큰 원을 그리며 마음껏 하늘을 날다가 다시 손안으로 돌아온다. 던지기 전의 것보다 조금 더 커진 크기로, 조금 더 반짝이는 별빛을 담아서.

글·사진 김건택



당신은 누구인가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어요. 하지만 대학 졸업 후에 결혼과 육아를 하며 10년간 전혀 작품을 그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단절이 생긴 거죠. 그러다 주변 지인의 권유로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이 2008년의 일이에요. 10년간의 공백 이후 나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어떤 재료를 사용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담을까 고민했죠. 그렇게 찾은 주제가 '꿈'이에요. 어릴 적 스케치북만 하나 있어도 즐거워하던 아이의 꿈, 그 단순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물론 작업을 하며 지치거나 지겨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작품을 만들지 못하던 시절의 간절함을 기억하며,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해요. 작가로서 어떤 수치화된 목표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전시를 하다 보면 전시 공간에 제 작품을 맞출 때가 많아요. 작은 소망이 있다면 제 작품이 딱 들어맞는 공간에서 전시를 진행하고 싶어요. 다른 곳에 신경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작품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당신은 어떤 작업을 하나요?

처음 미술을 시작했을 때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평면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새롭게 찾은 소재가 나무예요. 나무는 다른 소재에 비해 제한된 환경에서 쉽게 가공할 수 있는 재료죠. 부메랑 모양으로 가공한 나무 위에 바탕칠을 하고, 마스킹 테이프로 패턴을 만든 다음, 물감을 입혀 시리즈를 구상해요. 패턴이 같아도 사용하는 색이 조금씩 달라서 단 하나도 같은 작품이 없어요. 서양화를 전공해서인지 색을 자유롭게 조합해 사용하는 데 유리한 것 같아요. 패턴을 새로 만들 때는 주변의 것들에 영감을 받아요. 어떤 사물이나 자연을 관찰할 때 선과 면 위주로 보는 거죠. 나무를 본다면 나뭇잎 패턴을 단순화해 겹친다든지, 새로운 색을 조합한다든지요.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개별 작품들, 다양한 시리즈를 모아 한 공간에서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치 작업을 해요. 지금은 작품 하나하나보다는 설치 미술에 욕심이 커요.

당신의 대표작은 무엇인가요?

작품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이름이 붙으면 생각이 한정적이 되어 감상에 방해될 것 같아서예요. 부메랑에 그려진 패턴 속에 별이 많은데요. 바로 그 별을 통해 '꿈과 추억'을 말하고 싶었어요. 꿈은 미래 지향적이고 추억은 나의 과거를 말하잖아요. 대비되는 두 의미가 함께 담긴 것이 재미있죠. 나의 과거가 묻은 부메랑을 던지면 꿈이 현실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저의 대표작은 부메랑 240개를 낚싯줄에 걸어 커다란 부메랑을 형상화한 작품이에요. 작은 꿈이 크게 확장되어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았죠. 개별적인 부메랑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단순히 "던져보고 싶다.", "예쁘다." 하는 식의 반응이 많았는데, 큰 설치를 본 사람들은 압도당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일종의 포토존처럼 작품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사람들이 즐겁고 편하게 작품을 감상하며, 잊어버린 꿈에 대해 생각했으면 해요. 어렵고 부담스럽지 않은 미술 감상이 되기를 바라구요.



© 석동미, 2017



THE 가다

WALK
유동성의 세계

FEATURE
방구석 문화 데이트

TICKET
문화수목금토일

SKETCH
화성 전곡항

CHECK
오로지 나를 위한
다디단 코스

유동성의 세계

한 사람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지난다. 종종 마주치는 동네 사람들은 그를 한결같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무얼 찾으려고 매일 같은 길을 지날까. 누군가는 그에게 궁금함 혹은 답답함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그를 잡아 세워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한 번도 같은 길을 걸은 적 없습니다.”

글·사진 전진우

당신에게 화성은 어떤 곳입니까

안택근 작가는 오산에서 태어나 수원을 거쳐 지금은 화성 보통리 저수지 근처에 터를 잡은 예술가다. 꼭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주변 환경은 한 사람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니까, 그에게 이동의 이유를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이동한 적 없다는 듯 대답한다. “화성, 수원, 오산은 산과 물의 경계로 볼 때 같은 지역으로 보는 것이 마땅해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공동체 문화와 환경의 파괴 등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지요. 지금은 행정 지역이 각각 독립해서 구분되었지만, 제가 대학에 다닐 때까지 화성과 오산은 하나였어요.” 지도상에 표시된 경계선이 아닌 자신에게 설득력 있는 기준으로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 땅을 이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는 화성과 오산, 두 도시를 넘나들며 유년 시절을 보냈고 지금도 굳이 따로 나눠서 생각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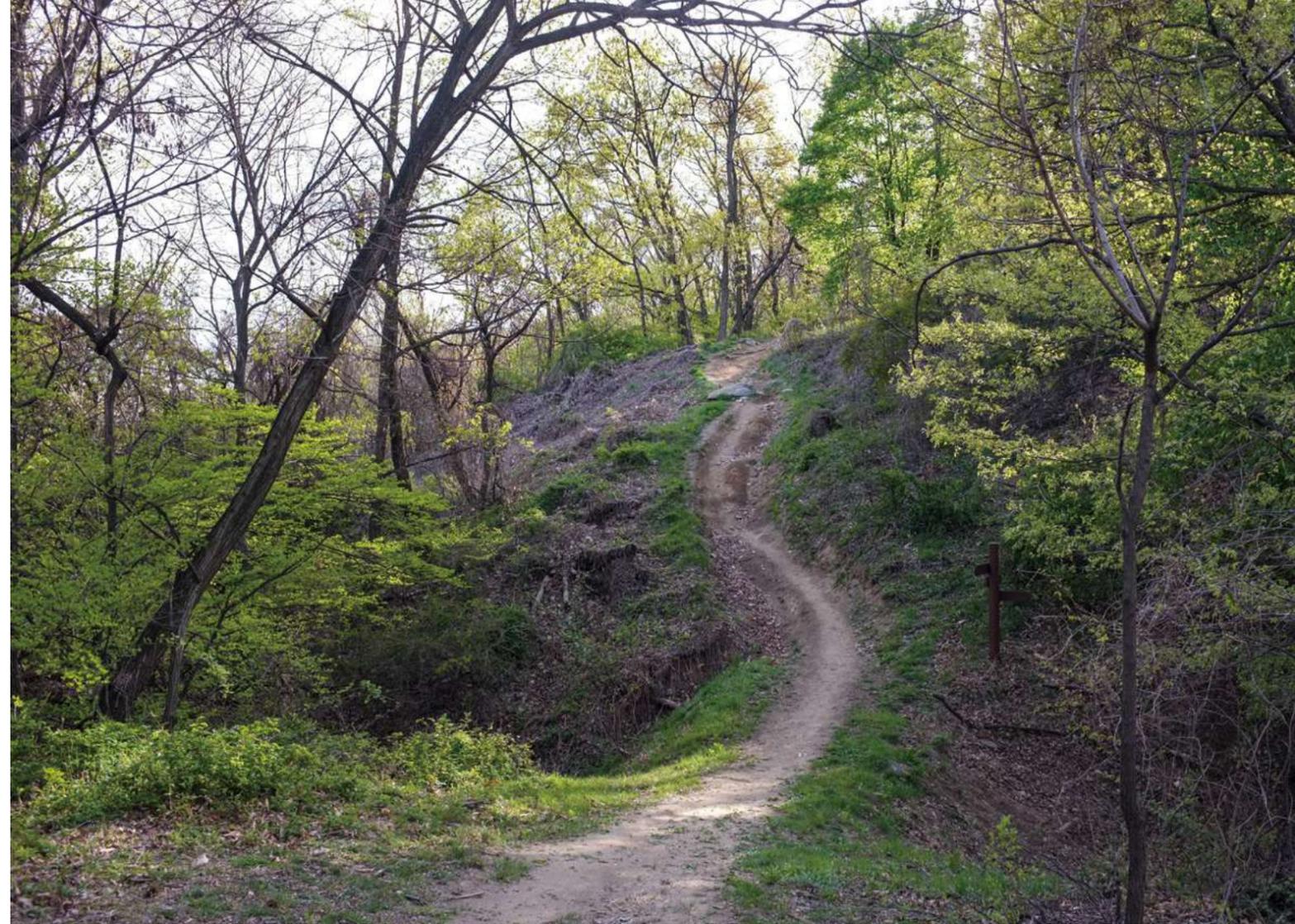
그의 첫 작업인 ‘장자의 꿈’ 시리즈는 대학 졸업 후 용주사와 용건릉을 오가는 길에 마주친 ‘기안리 공동묘지’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어려서부터 소풍, 천렵, 낚시 등을 하던 곳에서, 그가 세상에 내놓을 이야기의 단초를 발견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신기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나의 고향은 어디일까.’ 그런 질문을 독자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우니 말이다. “특별히 구분하여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제 일상이 화성이고 화성이 제 삶이에요.”



같은 길,
다른 이야기

지금 그의 작업실이 위치한 보통리 저수지는 화성 안에서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된 곳 중 하나다. 저수지 자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물과 나무, 숲이 만든 풍경은 도시 안팎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기에 충분했다. 용주사, 용건릉 등의 관광지도 뒤편을 더했다. 자연스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개발자들이 몰려들면서 풍경은 점점 더 기괴해졌다고 작가는 말한다. “인문적, 자연사적 주거 환경이 파괴되고 무분별한 공장지 조성은 이루어졌어요. 국가의 도시 정책 문제점을 드러내는 지역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에 기반을 둔 세 성향상, 제 작품도 자연스레 이 지역의 환경 변화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지켜보려는 그가 자주 찾는 곳은 앞서 말한 보통리 저수지와 태봉산이다. 그곳의 꽃(식물)과 죽은 나무들을 소재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심리 변화를 들여다보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또 숲을 찾아가는 그 자체가 작가에게 큰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태봉산을 찾는다. 감정 변화에 따르기보다는 찾을 때마다 바뀌고 있는 계절을 바라본다. “일일이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꽃을 촬영하고 기록하죠. 꽃이나 동식물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기도 하고 서식지를 넓히기도 하는데, 그런 변화와 인간의 심리 변화가 어떻게 연관 맺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그 과정이 저의 삶이자 작업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곳들이 일상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작가의 말을 떠올리며 태봉산을 오르는 길은 낯설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산이어서 그랬던 것만은 아니었다. 빼곡한 나무들과 거기에서 나는 소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할 숲의 순환이 나를 포함한 주변의 인간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해서 낯설었다. 나무와 내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끈으로 서로 균형도 잡고 먹을 것을 나눠 먹고 있다면 어떨까. 그런 동화 같은 생각도 해봤다. “숲을 걷는다.” 이 문장의 주체는 주로 걷는 사람이다. 길은 무대고 누구에게나 같은 길이였다. 하지만 나무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의 길은 단순히 ‘지나치는’ 의미를 넘어선다. “생명에 대한 경외심, 즉 생명을 소중히 받드는 모심의 마음이 필수 준비물이예요. 복장은 되는 대로 입고요.” 숲을 찾아가는 내게 작가가 일러준 말이 생각났다. 우리는 주체가 아니고 그저 각자의 준비물을 챙겨 길에 들어서서야 되는 것 아닐까. 주변 환경이 주체고, 그것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 들려줄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 언덕에서

보통리 저수지와 태봉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한 점’을 물었을 때 그는 ‘아무 언덕에서’라는 대답을 했다. 일몰이나 일출을 구경하는 것도 아무 언덕에서, 계절의 인사를 받는 일도 아무 언덕에서. 해가 질 무렵이면 일몰을, 일찍 일어난 아침이면 일출을 보러 가라고 말한다. 자연에 둘러싸여 있다는 자각과 발견할 줄 아는 감각을 가진 이에겐 당연 서 있는 장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때 자연은 움직인다. 앞서 말했듯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다. 끌어당기기도 하고 직접 다가오기도 한다. 한 장소를 매일 찾는 사람에게 왜 같은 곳을 반복해서 방문하냐고 물어보는 일은, 그 장소가 자연일 경우에는 어색한 질문이 된다. “오늘은 또 무엇을 봤습니까?” 오히려 이런 질문이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태봉산을 한참 걷다 내려와 저수지 근처에 차를 세웠다. 검색해 보니 일몰 시간은 7시 16분이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분천리 쪽으로, 해는 태봉산 능선 너머로 사라질 예정이었다. 작가의 지침에 따라 반나절을 보내는 동안, 내가 스스로 가보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생각에 기분 좋은 웃음이 났다. 잠시 다른 사람이 돼 보는 기분.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더욱더 선명하게 하는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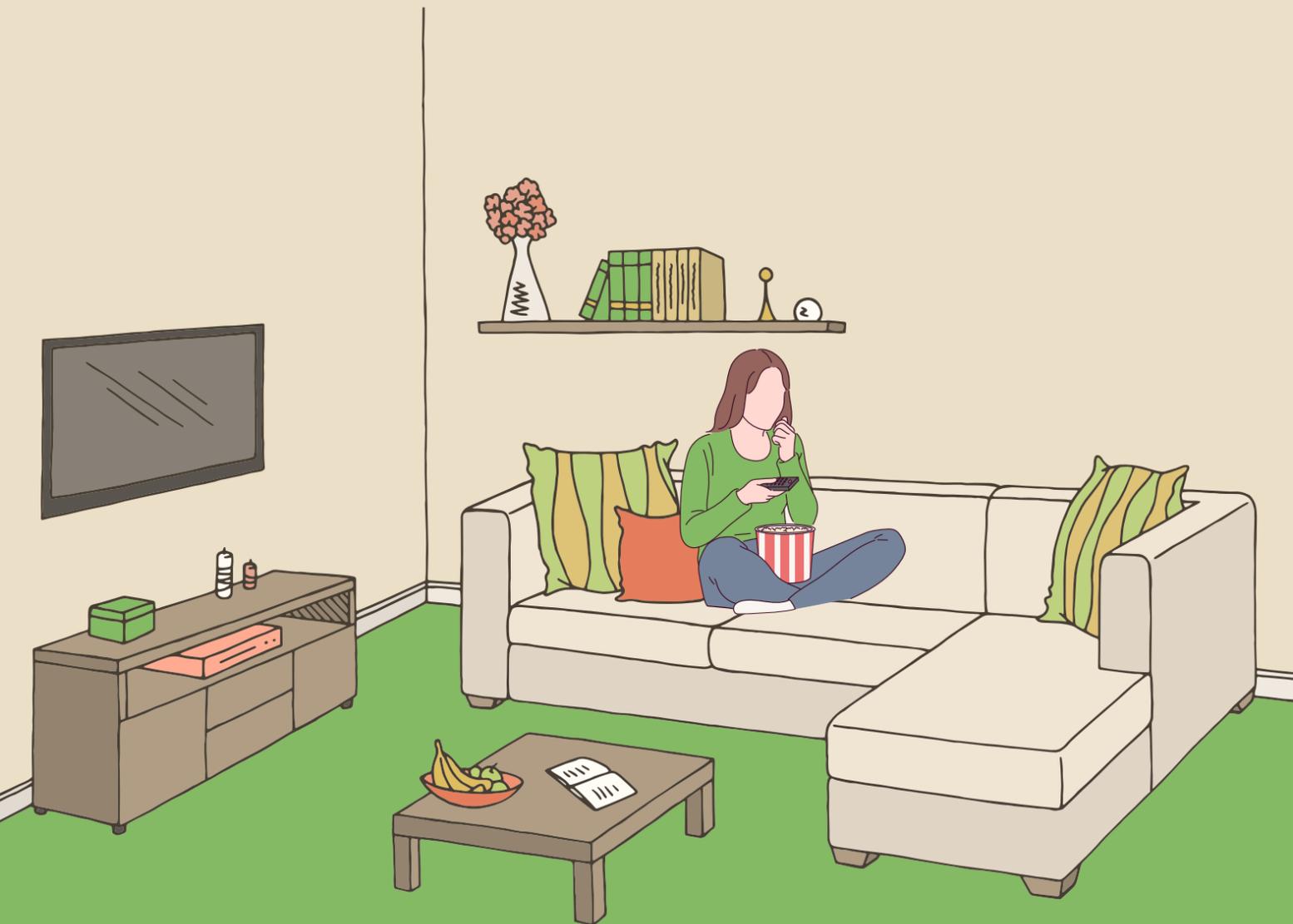
안택근 작가

화성 출생. 중앙대학교에서 조소를 전공했다. 2002년에 첫 개인전을 열었으며, 이후 5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화성과 수원에서 주요 작품 활동을 해 온 작가는 특히 자연과 인간의 관계 맺음에 질문하는 작업을 선보였으며, 현재도 4년째 ‘홀로움: 미스매치’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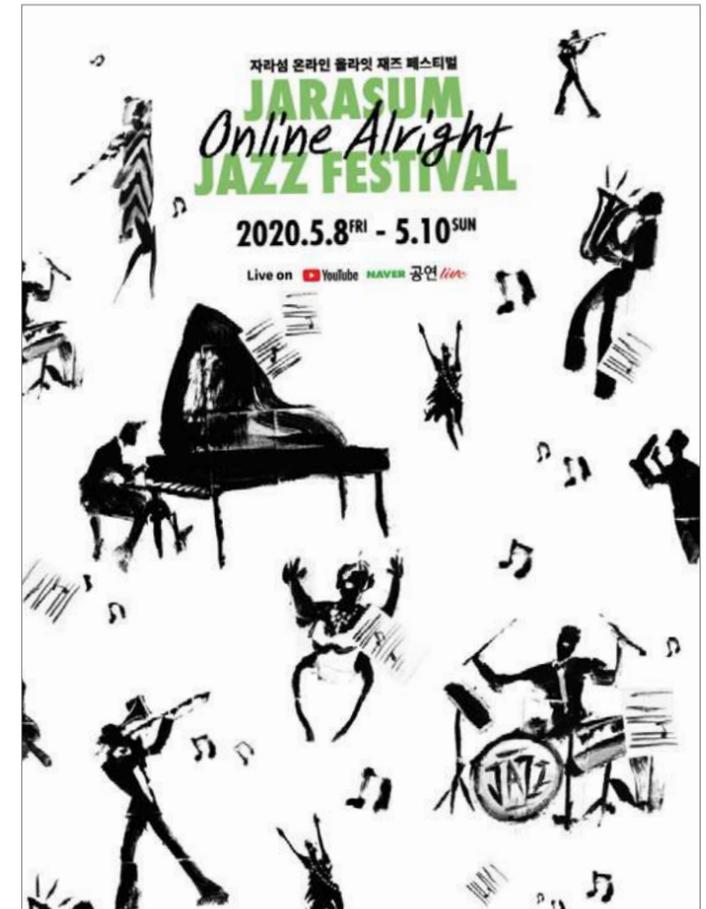
온라인으로도 생생한 현장감 방구석 문화 데이트

푸른 잔디 위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페스티벌, 맛집 투어 후 즐기는 전시 데이트. 그러나 올봄은 매년 해오던 낭만적인 문화 데이트를 즐길 수 없게 되었다. 기대하던 공연, 전시, 행사는 모두 취소되었지만 문화예술계에서는 아쉬워하는 관객을 위해 온라인으로 작품을 공개하고 있다. 고화질, 고음질로 제작된 작품을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함 그대로 집에서 만나보자.

글 차영은(기획홍보팀)



아시아 대표 음악 축제를 온라인으로 만나다
〈자라섬 온라인 올라잇 재즈 페스티벌〉



©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악 축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이 5월 8일부터 10일까지 'Jarasum Jazz 자라섬재즈' 공식 유튜브와 네이버 TV 라이브를 통해 찾아온다. 2004년에 시작된 이 페스티벌은 아시아·유럽·미국 등 세계 55개국에서 총 1,118개 팀의 재즈 뮤지션이 참여했으며, 누적 관객 2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대표 음악 축제로 성장했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이번 페스티벌은 국내 재즈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공연뿐만 아니라 역대 출연 아티스트 중 '다시 보고 싶은 자라섬 재즈 레전더리 아티스트'의 실황 영상도 중계한다.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된 국내 재즈 뮤지션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침체한 페스티벌계에 불을 일으키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라이브 공연에는 허소영 트리오, 김오키 새턴 발라드, 경기남부재즈, 임채선 트리오, 트리오웍스, 서영도x신현필, 골든스 왕밴드 등 뛰어난 실력의 재즈 아티스트들이 나선다. '레전더리 아티스트'는 자라섬재즈페스티벌 공식 SNS를 통해 모두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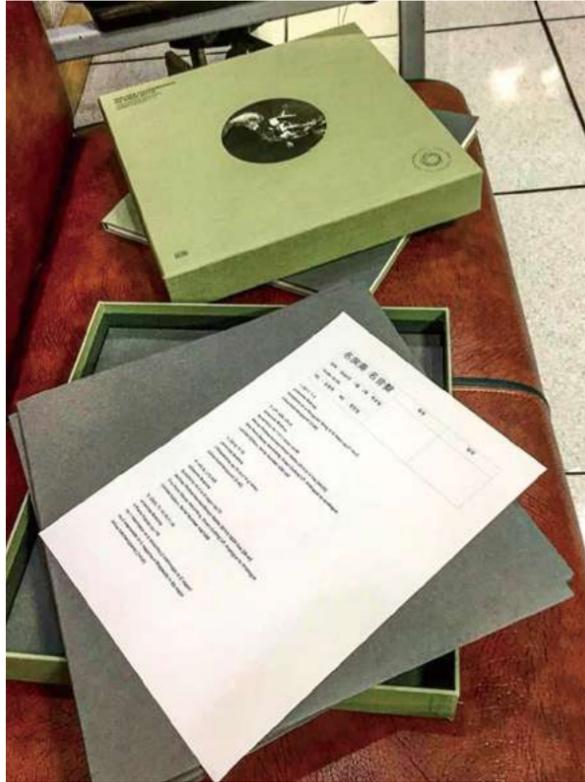
을 받은 후, 가장 요청이 많은 아티스트를 추려 실황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중계를 통해 자라섬재즈를 응원하는 국외 유명 재즈 뮤지션들의 안부 메시지와 특별 연주 영상도 함께 공개한다. 잠시 문을 열어 봄바람을 느끼며 방구석 1열에서 페스티벌 기분을 느껴보자.

연제 5월 8일(금)-10일(일)

어디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공식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누구와 손잡고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TIP 스크린 앞 돛자리, 시원한 맥주로 페스티벌 기분을 느껴보자

라디오로 만나는 클래식 공연
KBS 클래식 FM <명연주 명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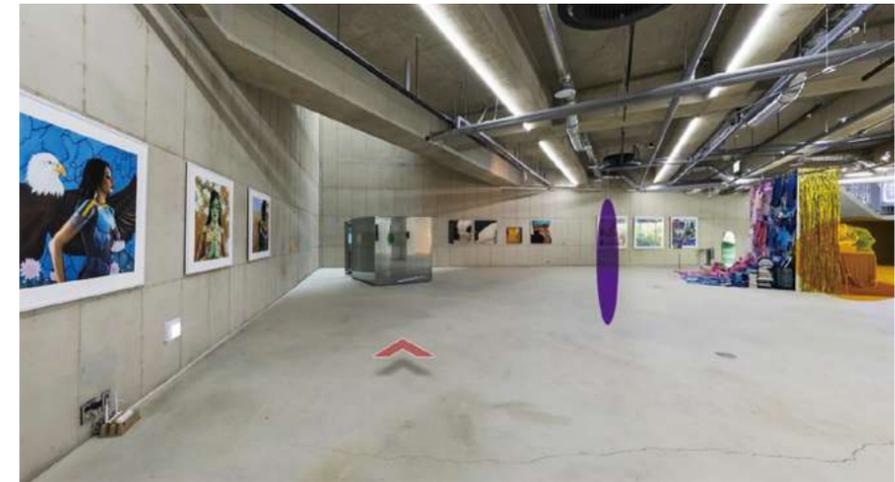
© KBS 클래식 FM <명연주 명음반>

화성시문화재단 공연 중 가장 빠른 전석 매진으로 인기를 증명한 <브런치 콘서트> 시리즈를 만나볼 수 없어 아쉬워하고 있다면, 라디오 프로그램 KBS 클래식 FM <명연주 명음반>을 추천한다. 이 방송은 클래식 라디오 방송이 들려줄 수 있는 최상의 작품을 매회 발표하는 느낌이 든다. 또한 <CD가이드>, <스테레오 사운드>, <레코드 리뷰> 편집장 출신의 정만섭은 최장 클래식 DJ로 활약 중인데, 대본과 작가가 따로 없어 진행자의 안목이 돋보인다. <명연주 명음반> 홈페이지에서는 방송 선곡표와 한 작품 이상의 앨범 커버 사진을 공개하며 공인된 명연주와 함께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이너 레이블 음반까지 소개한다. 곡 자체에 대한 해설보다는 문화적인 배경, 음반과 연주자에 대한 에피소드 등을 이

야기해 준다. 봄철이면 더욱더 나른해지는 오후 시간, 향긋한 커피, 달달한 디저트와 함께 클래식을 들으며 평화로운 휴식 시간을 즐겨보자.

언제 KBS Classic FM 매일 14:00~16:00
어디서 93.1MHz(서울, 경기)
누구와 한낮의 여유로움을 느낄 가족들과
TIP 애플리케이션 'KBS 라디오 KONG'으로도 들을 수 있다

VR로 만나는 트렌디한 전시
<나나랜드: 나답게 산다展>



© 사비나미술관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와 다른 작가의 집필로 매년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책,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는 국내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나나랜드'를 꼽았다. 나나랜드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 기준보다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의 기준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세계다. <나나랜드: 나답게 산다展>은 미술과 소비 분야가 협력한 특별한 전시로, 기존 관습과 규범을 벗어나 자신에 집중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람들 등 가장 나답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의식과 라이프스타일, 소비 문화의 변화를 짚고 새로운 사회현상에 주목하는 전시다. 사비나미술관 홈페이지 'Digital Museum'

에서 VR로 두 발 대신 마우스로 이동하여 마치 전시장에 있는 것처럼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집 안에서 무료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 전시를 통해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언제 '나나랜드'에 입성하고 싶을 때
어디서 사비나미술관 홈페이지 savinamuseum.com
누구와 나와
TIP 큐레이터 음성 전시 해설이 더해져 전문적으로 가상 전시 감상 투어가 가능하다

세종문화회관 <힘내라 콘서트> 시리즈
 <허풍선이 과학쇼 시즌2: 마리퀴리 vs 아인슈타인>



집에 있는 것이 지루해진 어린이와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공연 <허풍선이 과학쇼 시즌2>를 네이버TV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 <힘내라 콘서트(이하 '힘내라')>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 또는 연기되어 타격을 입은 공연 단체 및 예술가 집단을 위해 공연장 대관을 비롯하여 제작비, 중계 비용 등을 일체 지원한다. <힘내라>은 무관중 온라인 공연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취소된 공연과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공모를 진행했고 연극, 뮤지컬, 클래식 등 총 12팀을 선정했다. 선정된 공연은 네이버TV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5월 31일까지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그중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허풍선이 과학쇼 시즌2>는 세기의 과학자들을 만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즐기는 신나는 과학 버라이어티다. 이번 공연에서는 마리퀴

리, 아인슈타인을 소환하여 업적을 소개하고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즐기는 장면을 그린다. 또한 춤과 노래, 무대장치가 더해져 아이들이 집중하기 좋고 과학자들과 함께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언제 아이들이 방구석에서 지루해할 때
어디서 세종문화회관 네이버TV
누구와 뻥한 놀이가 지겨운 아이들과
TIP 5월 31일까지만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집에서 누리는 문화생활
 문화포털, 집콕 문화생활!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져 심심한 시간에 문화생활로 활기를 더해보자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집콕 문화생활!'.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사이트로,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정리해서 한 눈에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로 국악 애니메이션, 전시 및 영상자료, ACC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다국어 동화구연, 다문화꾸러미 등 교육적이면서도 재미있게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 정보들을 제공하고, 교육, 체험 분야로 전국 박물관,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온라인으로 즐

길 수 있는 사이트 정보를 보여준다. 이외에도 공연, 도서,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유익한 콘텐츠가 있다. 요즘 같은 시기, 어떤 문화생활을 즐겨야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안성맞춤인 사이트다.

언제 원하는 시간, 언제든지
어디서 인터넷이 되는 어느곳이나
누구와 심심한 가족들과
TIP 문화포털 사이트를 살살히 살펴보는 것이 유익한 방법이다.

화성시문화재단의 특별한 일주일 문화!수목금토일



화성 시민의 위축된 문화를 위해 준비했다 유튜브로 만나보는 '문화!수목금토일'

거리에 만개한 꽃이 봄을 알리지만 드문드문 보이는 마스크 너머 시민들의 얼굴에는 봄이 찾아오지 못한 듯하다.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시민들 간 마음의 거리도 훌쩍 멀어졌다. 이 거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활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화성시문화재단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 '문화!수목금토일'로 찾아간다. 단조로운 일주일을 변화시켜 보자.

글 류설희(미디어팀) 사진 제공 화성시문화재단



교육 콘텐츠

화성문예아카데미에서 인기를 끈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들이 직접 출연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실습에 필요한 팁을 제공한다. 문예아카데미의 교육 프로그램에 캐릭터, 펜화, 유화 등 집에서 따라 하기 쉬운 드로잉 힐링 콘텐츠와 오보에, 바이올린, 합창 등을 주제로 한 클래식 음악 콘텐츠가 업로드된다. 이외에도 코리요와 함께 배워보는 코로나19 예방 수칙, 마술사가 알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마술 트릭 등 유익한 집콕 생활을 위한 교육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놀이 콘텐츠

풍요로운 집콕 생활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미디어 장비 만들기, 그림 그리기, 음악 만들기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콘텐츠다. 전시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는 온라인 도슨트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실내악 연주단의 'EDM 들으면서 클래식 연주해 보기' 같은 재미있는 시도와 '화성시 농가 살리기를 위한 농산물 꾸러미 언박싱', '미디어 장비를 활용한 시그니처 사운드 만들기' 등의 영상들을 통해 웃음도 선사한다.



공연 콘텐츠

화성시문화재단의 '찾아가는 공연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공연팀의 플래시몹, 연습 브이로그 등이 제공된다. 비보잉팀은 위축된 시민 문화에 활기를 더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플래시몹 형태로 비보잉을 구현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리요와 함께하는 비보잉 클래스, 마스크를 써서 답답한 비보잉 코리요 같은 영상을 통해 공연장에서는 보기 힘든 연습 장면과 무대 뒤 모습을 담아내 예술단의 친근한 모습을 만나볼 기회도 제공한다.

문화!수목금토일

일시 매주 화,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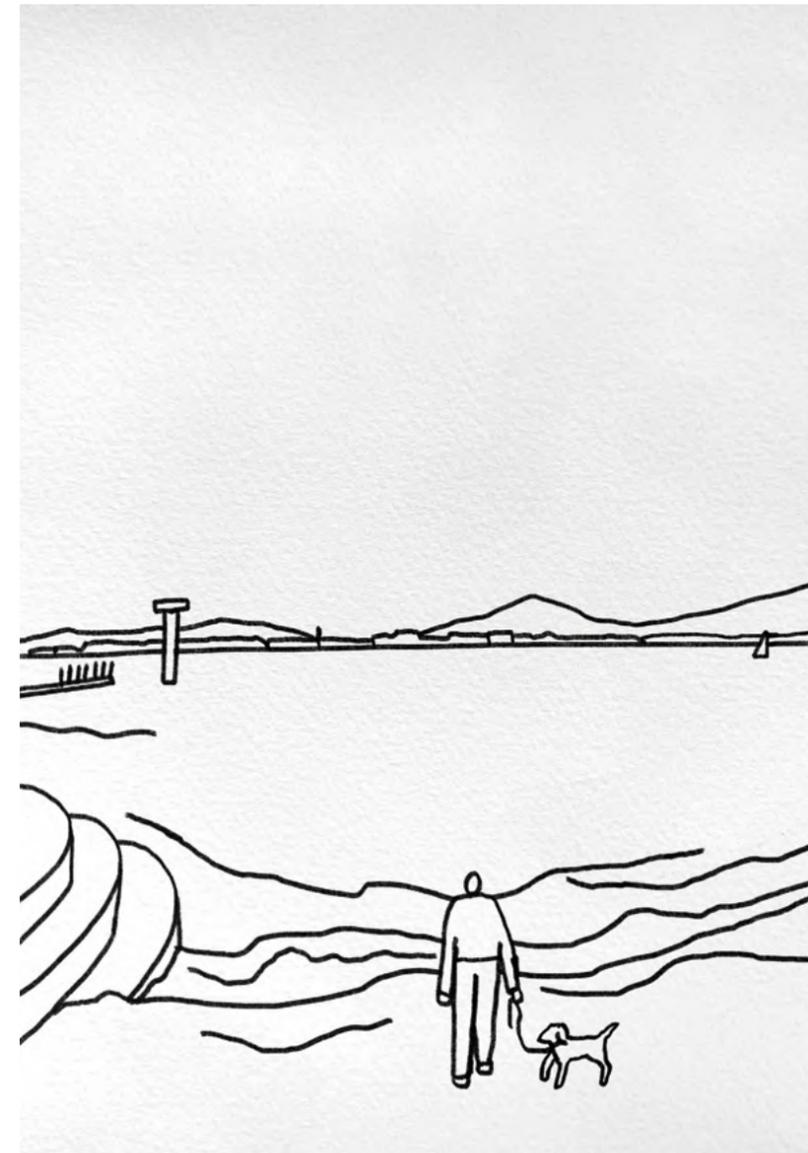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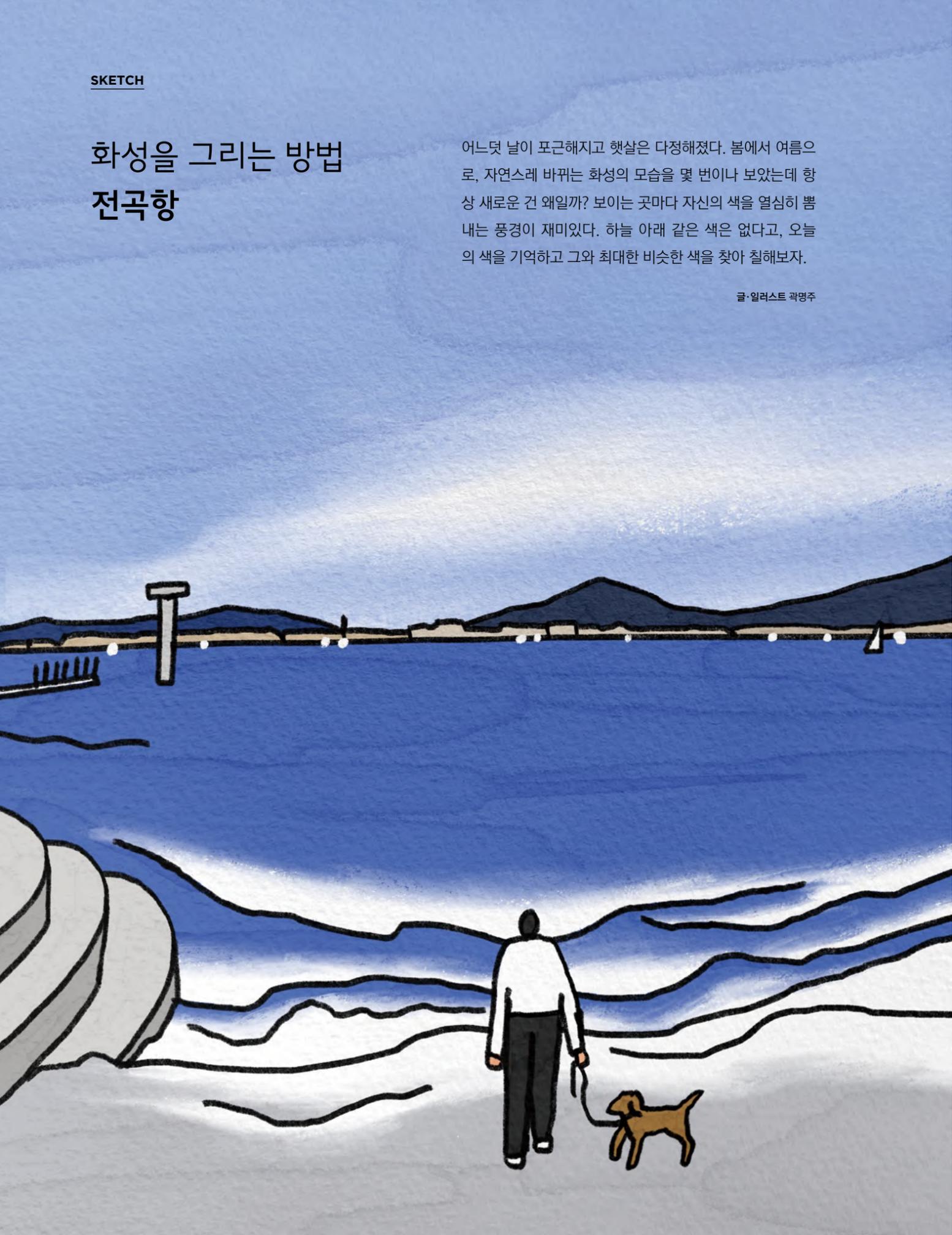
채널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미디어센터 유튜브 채널

문의 031 8003 6469

화성을 그리는 방법 전곡항

어느덧 날이 포근해지고 햇살은 다정해졌다. 봄에서 여름으로, 자연스레 바뀌는 화성의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는데 항상 새로운 건 왜일까? 보이는 곳마다 자신의 색을 열심히 뽐내는 풍경이 재미있다. 하늘 아래 같은 색은 없다고, 오늘 의 색을 기억하고 그와 최대한 비슷한 색을 찾아 칠해보자.

글·일러스트 곽영주



© 이수정

채색 방법

재료 아이패드 또는 유성펜, 물감

1 바라보기

하늘, 산, 바다, 땅. 사진 속에 담긴 자연을 바라봐요. 이번 그림만큼은 복잡한 건축물을 제외하고 크게 하늘과 산, 바다, 땅으로 나눠서 스케치 하세요.

2 생각하기

그림 속 사람과 강아지의 눈으로 자연을 보듯이 그려봐요. 하늘에 비친 파란색 바다, 하얀 구름과 파도를 색칠하세요.

3 상상하기

지금까지 보았던 바다를 상상하며 불빛과 같은 디테일을 넣어주세요. 모래 사이 빛나는 조개, 귀여운 돌멩이 등 추억을 담아 채워 그리세요.

오로지 나를 위한 다디단 코스



가끔은 밥 대신 군것질로 끼니를 때우고 싶을 때가 있다. 이번 주말에는 마음 먹고 디저트로만 배를 채울 작정이다. 몸과 마음까지 달달해지면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겠지! 별들이 잔뜩 꼬이면 어떡한담? 행복한 고민을 시작한다.

글 이주연



신선하게 카페부부스

푸릇푸릇한 콕샐러드, 폭신한 치아바타, 입에서 사르르 녹는 우유빙수... 메뉴판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상쾌해진다. 오늘은 신선한 브런치 메뉴로 디저트 투어를 시작해 볼까? 직접 만드는 생과일주스까지 곁들이니 풍성한 한 상이 차려진다.

-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2길 27-12
- O. 매일 10:00~23:00



달콤하게 벨르롱

알록달록 어여쁜 동그라미가 쇼케이스 안에 가득하다. 얼그레이부터 말차초코칩, 고구마케이크, 크림브륄레까지! 다양한 마카롱이 줄지어 서 있는데 가격마저 착하다. 한두 개 손에 쥐고 산책하며 오물오물 먹어볼까?

- A.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92
- O. 수~일 11:00~21:00, 월~화 휴무



쌘쌀하게 르 블랑

디저트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커피는 필수!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차분한 푸른색 바닥이 기분을 한결 잠잠하게 정돈해 준다. 부드러운 라테를 한 잔 주문하고, 디저트는 잠시 쉬어가려 했는데 형형색색 마카롱이 또 다시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또 홀린 듯이 주문하게 되는데...

-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3길 10-9 101호
- O. 화~일 12:00~00:00, 월 휴무



평온하게 안나의디저트

어여쁜 디저트로 화려하게 배를 채우고 나니 잔잔한 것들이 당긴다. 마음을 정갈하게 만들어주는 카페에서 디저트를 맛보면 딱 좋을 것 같다. 원목 가구와 화이트톤 벽지가 조화를 이루는 곳에서 에그타르트와 레몬파운드를 먹는다면 온몸에 다정함이 깃들 테지! 탁월한 선택이다.

-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3길 4-3
- O. 화~일 10:30~21:30, 월 휴무



THE 하다

HELLO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박진영

PLAY

집에서 제대로
즐기는 방법

LIST

어느 시인과
쌓은 책 기둥

PEOPLE

화성인의 대답
화성인의 그림

CULTURE & ISSUE

5·6월 문화소식

LETTER

화성시문화재단이
전하는 이야기

© 2014

주어진 일 인분의 삶을 충실히



“오늘도 저에게 주어진 일 인분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려 합니다.” 인터뷰 끝에 앞으로의 포부를 묻는 펍 난감한 질문을 던졌다. 신입사원에게나 꼭 맞는 물음이 적잖이 당황스러웠겠지만 곧 담백한 대답을 꺼내 놓는다. 그에겐 길고 깊게 간직해 온 따뜻한 소신이 있다. 늘 품어온 예술을 위한 마음은 오늘도 충실하게 이어진다.

글 김지수 사진 강현욱

한 지역의 창작創作을 위해

재단 입사 전에 다양한 예술 분야의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진 스튜디오에서 일하기도 하고 출판업에 종사하며 기자 일을 하기도 했어요. 미술관 큐레이터로 활동하기도 했죠. 재단에서는 올해로 4년째 일하고 있어요. 작년 말에 생긴 예술진흥국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았고요.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인에게도 직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 올해로 10년이 되었네요. 지금은 순수예술 활동에서 조금 멀어졌지만 학창 시절부터 꿈꾸고 동경해 오던 문화예술 분야에 계속 머물러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그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 해요.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먼저, 예술진흥국은 어떤 부서인가요?

예술진흥국은 문화 활동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전문 예술인,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을 해요. 그 안에서 제가 속해 있는 예술지원팀은 지역 전문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집중하여 더 수월한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죠. 예술인과 고락을 함께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려 해요.

예술진흥국은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활동을 하나요?

지역 예술활동 지원사업, 예술인 네트워크 사업, 예술인 매칭 지원사업까지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술인·예술단체의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죠. 예술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가까이 제공하고자 해요. 지원을 통해 예술인은 좀 더 안정된 기반에서 창작하고, 시민들은 작품을 좀 더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죠.

단순한 지원 사업을 넘어서, 다른 프로젝트도 함께 하나요?

예술인 네트워크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예술인 중심의 문화 클럽 ‘아티스트 소셜 클럽’ 운영을 통해 예술인 간 교류의 장

을 마련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가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술인 매칭 지원사업은 카페나 독립서점, 한옥 등 일상의 공간에서 펼칠 수 있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곳곳에서 관객 친화적인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해요.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없애고 문화 기반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죠.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민들이 예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친근하고 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닌, 순수예술을 기반으로 예술인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자 해요. 특히 하우스 콘서트 사업은 좋은 강연이나 공연을 좀 더 가까이에서 체험하는 관객 밀착형 행사로 기획했어요. 연주자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죠.



쓸모 없는 공간,
비어 있는 장소

이번 <화분>의 주제는 ‘집’이에요. 어쩌면 집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회사죠. 직장인으로서, 회사라는 공간에 어떤 의미를 두나요?

회사는 세상과 제가 만나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줄곧 하고 있어요.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접속 지점이며, 사적인 자아를 뒤로하고 공적인 자아를 대표로 세상을 맞이하는 장소죠. 회사엔 ‘동료애’라던가 ‘연대’ 같은 긍정적인 가치들도 있지만 어디선가 유명처럼 아득한 적들이 출몰하기도 해요. 그런 적들과 마주할 때면 김훈 작가님의 문장을 떠올려요. “파도를 옆으로 넘으려고 하면 배는 쓰러진다. 정면으로 넘어야만 비로소 파도를 넘을 수 있다.” 어떤 강연에서 작가님이 남긴 말이예요. 이런 의미에서 회사라는 공간은 저에게 늘 감당해야 하는 중력 같은 곳이지만 그 중력 덕에 제가 어디론가 날아가지 않고 땅 위에 똑바로 설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당장의 고단함을 피하기보다는 곧바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기르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거죠.

의미를 넘어 물리적인 관점에서 회사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쉬는 것은 편히 앉아 있다거나, 누워서 자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환기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면, 설거지나 청소처럼 반복적이고 육체적인 노동이 수반된 활동도 좋은 휴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같은 사무직은 컴퓨터 앞에 앉아 하는 일이 대부분이라 가끔씩 찾아오는 간단한 육체노동의 순간들이 즐겁게 느껴지거든요. 컵을 닦는다가 가습기에 물을 채우는 사소한 순간이 오히려 저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비실은 제가 좋아하는 공간 중 하나예요(웃음).

솔직한 답이네요. 회사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 있나요?

저는 쓸모없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생산성이 높은 공간 말고 아무런 의미와 목적이 없는 공간이요. 자꾸만 공간을 채우면서 쓰임을 두려워만 하는 건, 표면적인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창의성에서 나오는 효율성은 배제될 수 있어요. 회사에도 집의 뒤뜰처럼 ‘비움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창의적인 활동은 비움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창의적인 일을 하는 곳은 천고가 높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작더라도 텅 빈 공간이 존재한다면 스스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런 곳에서는 뭐든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쓸모 있는 공간으로 남을 수 있겠죠. 재단에서 일하기 이전에 예술인으로 살던 습관이 남았는지, 늘 창의적인 활동에 관한 열망이 있어요. 그 마음이 이런 생각의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답변을 듣고 나니, 문득 책상 풍경이 궁금해지네요.

제 책상은 잘 비워져 있어요(웃음). 다 숨겨 놓거나 서랍 속에 넣어 놓았죠. 미니멀한 빈 공간과 풍경이 좋아서요.

다양한 예술 분야의 경력을 바탕으로, 재단에서 새롭게 맡고 싶은 업무가 있나요?

특정한 부서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시각예술을 베이스로 문화예술 관련 일을 이어왔지만, 요즘에는 공연 관련 업무도 하다 보니 조금 안목의 폭이 넓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는 낯선 분야라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힘든 만큼 성취감도,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정답이 없고 기획하기 나름이라는 점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죠.

지금에 만족하시는군요! 끝으로 지면을 통해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집’이라는 주제와 제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는데요(웃음). 사실 제 취미가 집 모양 피규어를 모으는 거예요. 이걸 그걸 아는 지인에게 선물 받은 건데요, 여기에 새겨진 문장을 읽어보면, ‘A house without books is like a windowless room’, 책 없는 집은 창 없는 방과 같다는 뜻이에요. 선물 받은 것이지만 이 문장을 언제나 곁에 두려고 해요. 책을 가까이해야 내 마음의 방이 세상을 향해 열려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요. 이런 생각으로 사내 동아리 ‘책이고’ 활동도 하고 있어요. 사람과 책을 잇는다는 의미를 가진 동아리죠.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문장을 실현하는 일을 회사에서 동료들과 할 수 있다는 게 즐거워요. 지면을 빌린다면 이 문장 하나를 꼭 남기고 싶어요.



문화를 담은 집,
시절인연

“송산 지역 독지리 농촌 마을에 ‘시절인연’이라는 한옥이 있어요. 하우스 콘서트 사업 관련 리서치를 하다가 발견한 곳인데요. 개인의 집이지만 영화제나 강좌 같은 문화 관련 소소한 행사가 열리기도 하는 공간이에요. 아기자기한 공간 연출을 즐기며 예술에 대해 열린 가치관을 가진 분이 주인이시죠. 공공기관에서 대규모로 공급하는 문화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작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문화 행사도 의미가 있어요. 지역 문화를 하나의 생태계로 바라보면서 더 다양한 종류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은 중요해요. 지역 문화의 자생성과 탄력성이 더 강해질 수 있겠죠.”

PLAY

I Am a Homebody 집에서 제대로 즐기는 방법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니, 여유롭던 마음이 다소 게을러지기 시작했다. 뒹굴뒹굴하는 하루에 지쳤다면 오늘만큼은 최선을 다해 움직여보는 건 어떨까? 친구와 가족, 나 혼자라도 즐기는 집콕 휴가! 집에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글 김재은

© 푸드블로그 미스터몽

손목이 아프지만 괜찮아 달고나 아포카토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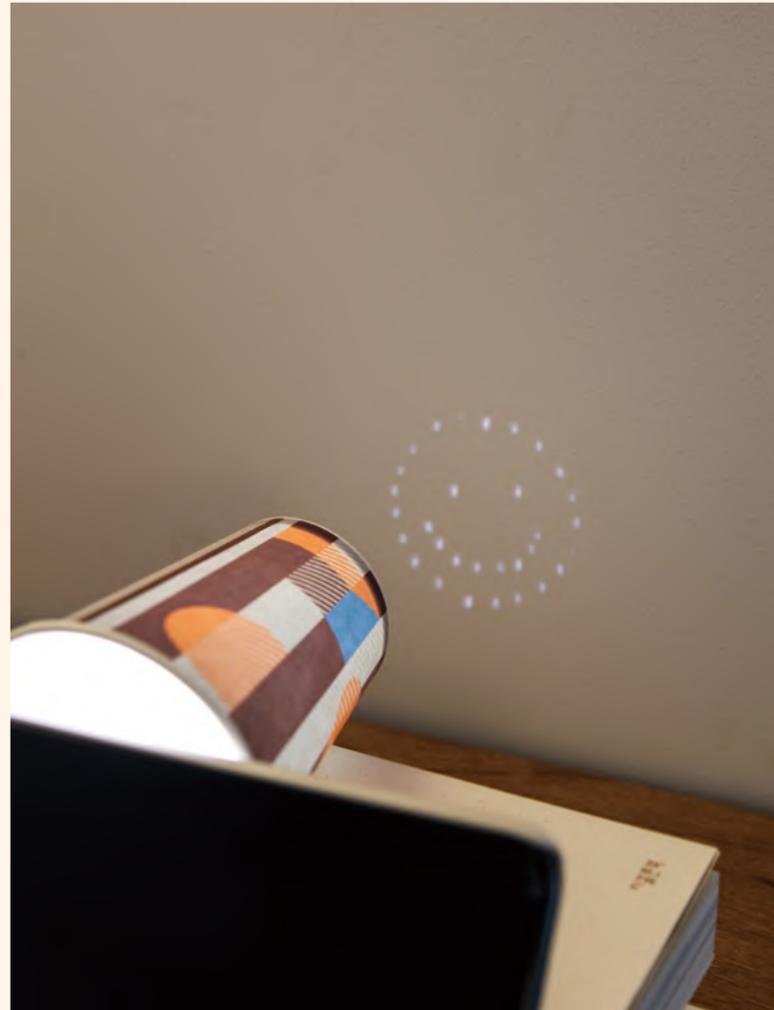


© 푸드블로그 미스터몽

준비물 커피믹스 3봉지, 설탕, 우유, 아이스크림, 시나몬 스틱, 계핏가루, 거품기

- 1 큰 볼에 커피믹스 3봉지, 설탕 1.5큰술, 뜨거운 물 3큰술을 넣는다.
- 2 거품기로 설탕과 커피가 잘 섞이도록 한 방향으로 빠르게 저어준다.
(커피 색이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더 빠르게 젓는다.)
- 3 컵에 우유를 1/3 정도 붓는다.
- 4 아이스크림을 1스쿵 떠서 컵에 올린다.
- 5 완성된 달고나 커피를 아이스크림 위에 부어준다.
- 6 계핏가루를 취향껏 뿌리고 시나몬 스틱을 꽂아 달고나 아포카토를 완성한다.

반짝반짝 환경까지 생각하는
종이컵 조명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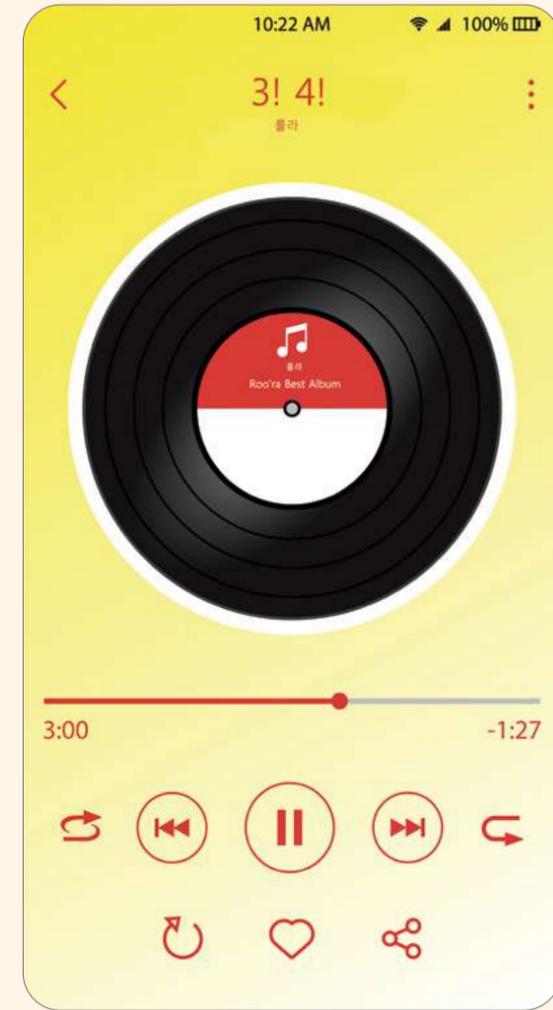
© 김재은

준비물 사용한 종이컵, 펜, 송곳, 손전등

- 1 종이컵 바닥 부분에 원하는 모양을 그린다.
- 2 펜으로 그린 대로 송곳이나 뾰족한 도구로 콕콕 찌러 구멍을 뚫어준다.
- 3 불을 끄고 종이컵 속으로 손전등을 비춰 벽을 확인한다.

TIP 종이컵 안에 다양한 색의 셀로판지를 덧대면 더 실감 나는 조명을 만들 수 있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롤라 '3! 4!' 가사 맞추기 게임



© 롤라 [Roo'Ra BEST ALBUM]

준비물 음악이 나오는 전자기기

- 1 출제자는 음악이 나오는 전자 기기로 롤라의 '3! 4!' 노래를 듣는다.
- 2 자기 차례에 "3! 4!" 가사가 나올 타이밍에 "3! 4!"를 외친다.

가사

여기 숨쉬는 이 시간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많은 기쁨과 한숨들이 뒤섞인 이곳에서 3! 4!

온종일 나 홀로 집에 어느 시인과 쌓은 책 기둥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과 요원해진 지 제법 긴 시간이 흘렀다. 휴일이 찾아와도 침대 위에 오도카니 앉아 다운밤을 만한 영화를 찾고, 봄날이 다가와도 집 안에 머물며 텅구는 종이에 몇 송이 꽃을 그려 볼 뿐이었다. 이번 주 휴일도 어김없이 집이지만, 그간의 거리두기로 무료함을 메울 약간의 요령을 알게 되었다. 오늘은 나 홀로 집에서 사람도 만나고 전시도 감상해 보기로 한다. 양 손바닥 위에 책을 올리면 가능해지는 마법, 오늘의 길라잡이는 시인 '오은'이다.

글 이주연

사람들과 마주하는 아침 오은의 시집, 《나는 이름이 있었다》



이번 달 생활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 성공을 기다리는 사람, 경쟁자가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어제의 영광을 다시 기다리는 사람, 내일의 행복을 처음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기다림을 반복하는 사람과 기다림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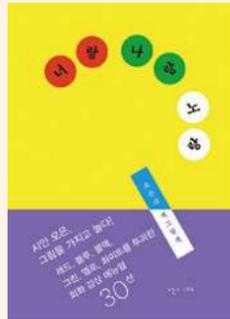
—〈기다리는 사람〉중에서

바깥에서 맘 편히 사람을 만나지 않은(못한) 지 오래되었다. 한적한 곳에서 만나려고 해도 좀처럼 그런 공간을 알아내기 어렵고, 친구네 집에라도 가려 하면 이동하는 길목이 겁나고 무섭다. 어디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여러 가지 위험이 어쩔 수 없이 집에만 머물게 하는데, 어지간한 집순이에게도 '사람이 고프다'는 게 무언지 알게 해주는 이상한 시절이다. 친구가 그리운 나날을 지나는 중에 문득 사람으로 가득한 시집 하나가 떠올랐다. 1쇄는 초록색 배경에 주황색 옷핀이 총총히 박힌 표지, 2쇄부터는 주황색 배경에 초록색 옷핀이 총총히 박힌 표지를 가진 《나는 이름이 있었다》가 그것이다.

〈사람〉이라는 제목의 시로 시작하여 〈사람〉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시로 끝맺는 이 시집 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있다. 궁리하는 사람, 바람직한 사람, 기다리는 사람, 읽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갔다 온 사람, 세 번 말하는 사람... 시집 안에 머무는 사람들을 한 행 한 행 읽어 나가며 수많은 장면을 떠올린다. 나는 편편에서 만나는 화자들과 함께 '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응시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선을 긋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머릿속에 왔다 가는 사람들을 마주하며 마음으로 또박또박 인사를 건네는 휴일. "안녕하세요?" 종잇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여기저기 인사를 건네고 나니 마음에 자그마한 활기가 솟는다. 마지막 시편까지 읽고 책을 덮자 기분이 좀 이상하다. 이 수많은 사람이 전부 아는 사람들 같아서, 그 사이에 분명히 나도 있던 것 같아서.

MAGIC 2

그림을 읽는 한낮 오은의 색그림책, 《너랑 나랑 노랑》



이 책을 사실 때 주의할 점:

1. 물론 이 책은 색과 빛과 그림과 사랑에 대한 책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2. 만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책을 접어들었다면 아주 위험한 일을 한 겁니다. 왜냐구요?
3. 이 책에는 폭발물질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4. 그 폭발물질이 당신의 감성과 아름다움과 사랑에 대한 열망과 결합할 때,
5. 그때 일어날 불꽃 축제에 관하여 이 책을 지은 오은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아름다운 것들 앞에서 치열하게 웃고 울다가 드디어 쓸쓸해진 죄박에는.
6. 당신에게도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오래 이런 책을 보고 싶어한 당신의 기다림에 책임이 있다면 있을 뿐.

— 故 허수경 시인의 추천사

평소에는 전시를 보러 가야지 생각했다가도 막상 휴일이 오면 게으름을 부리다 나갈 시간을 놓치곤 했다. 부랴부랴 준비하고 나가봤자 게 눈 감추듯 후다닥 작품을 감상하고 돌아와야 할 것 같아 포기하기 일쑤. 어쩌다 일찍 준비를 마치고 큰맘 먹고 나왔다가도 전시 요금이 생각보다 비싸서, 미술관까지 가는 길이 너무 복잡해서, 오늘은 미술관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갖은 이유로 미술관 대신 다른 곳을 택하곤 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만 있는 시절이 닥쳐오니 왜 이리도 미술관에 가고 싶은지. 좋은 작품을 보지 못해서 이토록 무료한 건 아닌지 (비)합리적 의심마저 하게 된다.

시인 오은은 이런 나에게 작은 초대장을 건넨다. 《너랑 나랑 노랑》이라는 ‘색그림책’으로 놀러 오지 않겠느냐고. 색채라는 테마로 큐레이션도 깔끔하게 마친 이 미술 산문집은 집에서도 가뿐히 찾아갈 수 있는 한 권의 미술관이다. 문을 살그머니 열고 들어가면 빨강, 파랑, 하양, 노랑, 초록, 검정이라는 색채를 메인으로 삼은 서른 점의 작품이 눈 앞에 펼쳐진다. 오은 미술관의 매력은 큐레이션 한 작품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저자는 큐레이터가 되어 《너랑 나랑 노랑》을 시작하는가 싶더니 직접 화가가 되어 이려저려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화가를 불러와 가상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한다. 게다가 작품을 보고 느낀 바를 편지나 시로 만들어 읽어주기까지 하니 이 미술관에는 볼거리가 담백하다. 오은 시인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그의 시그니처 컬러가 주황이란 사실을 알 테다(몰랐다면 지금부터 알아두는 것도 재밌을 것이다. 그의 시집 전부가 주황색 옷을 입었다는 귀여운 사실을 인지하게 될 테니!). RED-BLUE-WHITE-YELLOW-GREEN-BLACK으로 이어지는 그의 큐레이션을 한 바퀴 돌고 나왔는데, 어떤지 주황이 희미하게 비친 듯한 기분은 그 때문이었을까?

MAGIC 3

온기가 깃든 저녁 오은의 산문집, 《다독임》



다독다독은 의태어지만 다독이거나 다독임을 당할 때, 우리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어떤 소리를 듣는다. “괜찮아, 괜찮아”라는 몽근하고 다정한 위로가 들릴 때도 있고 “괜찮아? 괜찮은 거지?”라는 다급한 물음이 들릴 때도 있다. 어느 것이든 괜찮은 사람이 괜찮지 않은 존재에게 건네는 말이다. 하는 사람도, 그것을 듣는 존재도 그 순간만큼은 괜찮아지게 만드는 말이다.

마침내 나를 살게 만드는 다독임이다.

— 작가의 말 (다독이러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돌아보는 일) 중에서

《나는 이름이 있었다》로 수많은 사람을 읽었고, 《너랑 나랑 노랑》으로 갖은 작품을 감상했지만 책을 덮고 나면 이내 쓸쓸해진다. 책 속에 폭 빠져 있을 때 느낀 따뜻함은 꿈이었던 것처럼, 책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다시 집 안에 혼자라는 사실을 마주해야 하는 이상한 휴일. 오늘 같은 날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온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펼쳐 든 오늘의 마지막 책은 오은의 산문집 《다독임》이다. 이 책에는 아주 보통의 이야기가 틈틈이 새겨져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목욕탕에서 나는 대화나 초등학교 두 명이 머리 맞대고 게임을 하며 나는 이야기, 백지를 보며 했던 단상이나 국어사전에 대한 애뜻한 마음 같은 것. 너무 사소해서 이토록 따뜻하고, 지나치게 평범해서 이만큼 소중한 책. 책장을 넘기는 내내 좋은 문장에 밑줄을 긋고 모서리를 세모나게 접었다. 다 읽고 보니 책이 울퉁불퉁, 한없이 못나 보인다. 접힌 쪽수만큼 공감으로 꼬덕이고 다독이는 손길을 느꼈다고 생각하니 못생긴 책의 꼴이 사랑스럽기 그지없다.

세상엔 많은 시인이 있다. 가느다란 금테 안경에 가르마를 반듯하게 탄 시인, 눈곱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머리는 늘 부스스한 시인,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게 품새가 근사한 시인, 작고 귀여운 타투를 몸 이곳저곳에 새긴 시인, 새파란 색으로 머리카락을 물들인 시인... 수많은 시인 중 늘 입꼬리를 귀까지 걸고 무구한 웃음을 흘리는 시인이 있다. 세상을 투명하게 바라보고 순박하게 기록하는 시인, 천진한 오은 덕분에 온종일 집에서 보내야 했던 무료한 하루가 푸근하게 저물어간다. 오늘의 길라잡이에게 소중한 마음을 보내며 좋은 꿈을 꾀보기로 한다. 굿나잇!

화성인의 대답

기억 속의 집은 어떤 곳인가요?

햇빛이 강하게 내리비치고, 큰 회색 문을 열면 작은 골목들이 있는 곳. 내가 기억하는 나의 첫 번째 집이다. 그 집에서 처음 딸기를 먹고 첫 번째 생일 파티를 했다. 집은 생각보다 나와 많은 것을 공유했고 함께 성장했다. 화성인의 추억의 담긴 집이 궁금해 물어보았다.

에디터 김채은

캔디 | 주부

다시 만난 어린 시절 우리 집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늘 초라했다. 친구가 놀러 오겠다고 하면 얼버무리며 도망치듯 혼자 걸어갔고 친구가 몰래 뒤따라온 것은 아닌지 주변을 의식하기도 했다. 번듯한 이층집의 쪽문을 열고 한 발자국씩 내려가던, 그 계단의 좁고 어두운 통로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비가 무섭게 내린 어느 여름,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안방으로 쳐들어온 빗물을 퍼내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 긴박한 얼굴을 바라보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날 아침, 반쯤 가려진 창문 밖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너무도 평온해 보였다.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룬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조용하고 푸른 마을에 자리해 있다. 아이들과 4년째 지내면서 나는 결혼 후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집을 잠시 떠나야 했다.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한 통.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야기. 이틀 후인가 나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조용히 집을 꾸렸다. 복잡복잡 아이들과 함께 지내던 우리집과는 달리 격리 병실은 조용하고 텅 비었으며 딱 닫혀 있었다. 그곳은 처절하게 외로웠다. 삭막하고 답답한 병실. 그곳에서 나는 반지하 그늘에 갇혀 있던 어린 적 움츠렸던 마음을 다시 만났다. 나는 나 자신을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언젠간 이 시간이 아득하게 느껴지는 날이 올 거야.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견뎌보자...” 그렇게 많은 날을 견디고 39일째가 되는 날,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내딛은 우리 집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마치 잃어버린 퍼즐을 다시 찾아 맞추는 듯한 기쁨으로 우리집은 그렇게 나를 반겨주었다.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화원에 가서 예쁜 꽃 화분들을 여러 개 사 왔다. 집 안 구석구석 봄 향기가 가득 차는 듯했다. 나는 가만히 입을 열어 말했다. “역시 우리집이 최고야.”

이은아 | 청소년 진로 교육 강사

손가락 그림 화가가 모여 있던 집

어릴 적, 다락방이 하나 달린 단칸방에 산 적이 있다. 그 흔한 소시지 하나 먹고 싶어도 꼭 참아야 했던 시절이었다. 나와 언니, 동생, 그리고 할머니까지 우리 넷은 한 이불 속에서 등을 붙이고 잤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우리는 서로의 등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주었다. 스욱스욱, 여느 화가 못지않게 제법 잘 그려진다. 토실토실한 살의 느낌도 좋았다. 웃음소리가 자장가 되고 살갓에 와닿는 따스한 온기로 스르르 눈이 감겼다. 그렇게 많은 밤이 지나갔다. 나는 지금, 가족이 방을 하나씩 차지할 만큼 꽤 넉넉한 집에 살고 있다. 부대끼 일도 없고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환경을 갖췄다. 근데 때때로 마음이 허전하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안락한데도 불구하고 그 시절 좁디좁아 서로의 살결이 부대끼던 다락방 단칸방이 생각난다. 그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때의 따스함 가득한 마음만은 공공 싸매어 다시 가져오고 싶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안을 구석구석 그 온기로 채우고 싶다.

간석영 | 꽃차소믈리에

장난감이 가득한 다락방 집

빠격거리는 나무 계단을 오르면 다락방이 보였다. 다락방 계단은 어린 나에겐 오르기 힘들고 오래 있기도 힘든 장소였다. 그런데도 자주 오르락내리락한 이유는 오직 장난감 때문이다. 어린이날 동생에게 선물한 인형의 집부터 바퀴가 여러 개 달린 무선 자동차, 관절 로봇 등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무한대였다. 지금 생각해 보니 부모님은 나 때문에 장난감을 모두 다락방에 보관해 두신 것 같다. 심하게 놀던 어린 시절, 장난감을 망가트려 생긴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서해인 | 강사

지금 살고 있는 만능 집

집순이인 나에게 집은 일터이자, 쉼터이자, 놀이터다. 6년 전 지병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우울하고 답답했지만, 이젠 적응이 되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인터넷으로 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 거실은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베란다의 독서와 기도하는 공간이 있는 놀이터가 된다. 비록 새집도 아니고 넓고 멋있는 집도 아니지만, 내게는 소중한 쉼터이고 나아가 가족에게도 따스하고 포근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한다.

김민정 | 취업준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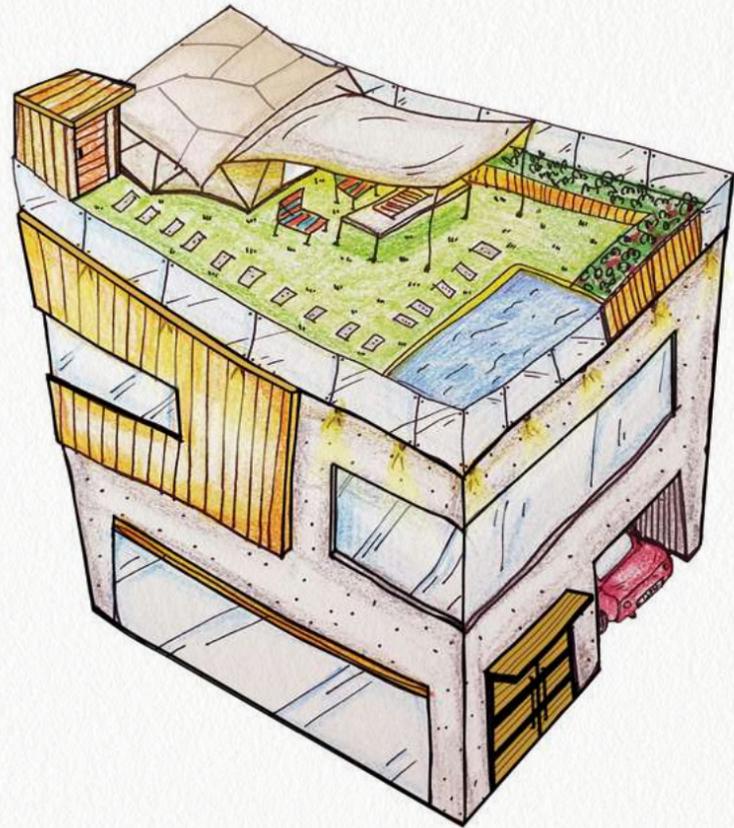
책상 밑 나만의 집

어릴 때 내 방 책상 밑은 나의 두 번째 집이었다. 책장과 이어진 책상 아래는 작은 몸집의 내가 들어가기엔 안성맞춤이었고 거기에 이불을 뒤집어쓰면 그보다 완벽한 것은 없었다. 그 안에서 만화책을 읽거나 MP3로 노래를 듣는 등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생각해 보니 작디작은 그 공간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공간이었고, 그곳에서 마음의 안정을 취했던 것 같다. 영원히 내 몸에 딱 맞을 것 같던 그 공간이 비좁고 작다고 느껴질 때쯤, 서서히 책상 밑은 내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나에게 '나'보다는 '우리'라는 단어가 당연해지면서, 점점 나만의 시간은 줄어들었다. 내 마음보다는 남의 마음을 우선시하게 되고, 내 망가진 마음은 홀로 이겨내야 하는 싸움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겨울,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엉망인 날이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곳곳이 괜찮다고, 심지어 나 자신을 속이며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다. 날씨는 얼마나 추운지 모든 것이 얼어 있었고, 걸음을 재촉해 집에 들어간 순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때 나는 잊고 있던 나의 두 번째 집이 생각났다.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공간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 큰 몸을 구기구기 접어 책상 밑으로 들어갔다.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편안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펄펄 흘렸다. 그 일을 계기로 오롯이 나만을 위한 공간, 그것이 제일 중요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집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묵묵히 존재함을 알게 됐다. 마음의 편안함과 안식,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화성인의 그림

상상 속의 집은 어떤 공간인가요?

에디터 김채은



최현경 | 미술학원 강사
나만의 휴식 공간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나만의 집, 단독주택에 대한 꿈이 있다. 요즘은 모두 아파트뿐이지만 도심 속 자연과 함께 나만의 집에서 내 스타일대로 살고 싶다. 다들 휴일이면 자연을 찾아 캠핑이나 여행을 많이 하는데 굳이 나가지 않아도 내 집에서 즐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옥상에 작은 텃밭과 캠핑 시설이 갖춰진 텐트, 그리고 호텔에서나 볼 법한 야외 수영장까지, 그리고 바닥엔 잔디를 깔아 자연 속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 모든 것이 내 집 옥상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만의 휴식처이자 여행지 같은 곳. 집의 전체적인 컬러는 그레이, 우드, 블랙, 그린 같이 자연 친화적인 컬러로 단조롭게 표현하고 싶다.

나는 시간이 남을 때마다 미래에 살고 싶은 집을 생각하던 아이였다. 상상 속 내 집은 항상 산속에 있고 꽃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별거 아니지만 상상할 때마다 행복하던 그 질문을 당신에게도 하고 싶다.



박미숙 | 주부
꽃향기가 가득한 이층집

알록달록 꽃이 현관 앞, 창문 그리고 2층 테라스까지 있는 예쁜 이층집에서 살고 싶다. 1층 정원에는 돌로 바닥을 다져서 자연스럽게 만든다. 그 앞엔 연못이 있고, 연꽃과 수련을 심는다. 또 블루베리 나무를 심어서 아이들이 따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작은 텃밭도 가꿀 것이다. 벌써 깻잎, 상추, 마늘이 났다. 울타리는 무궁화로 할 것이다. 국산 무궁화가 정말 멋지다. 어릴 때 집 울타리가 무궁화나무였는데 그때를 추억하며 무궁화 울타리로 했다. 상상 속의 나의 집 정말 멋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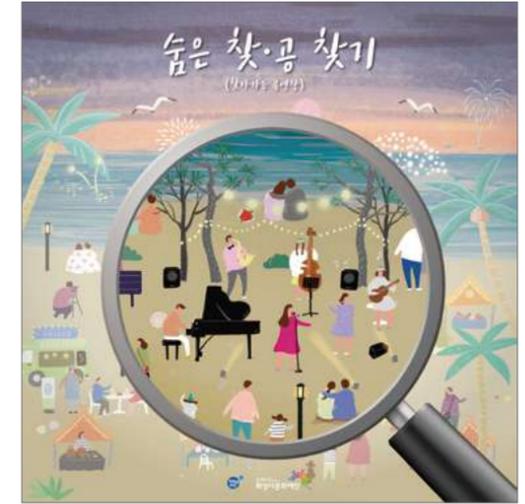
화성시문화재단 5·6월 문화소식

글 차영은(기획홍보팀) 사진 제공 화성시문화재단

점심시간을 즐겁게 만들어드립니다!
〈즐점 콘서트: 도시, 樂〉 신청 접수



화성시 어딘가에서 열리는 게릴라 버스킹
〈숨은 찾·공 찾가는 공연장 찾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2020 찾아가는 공연장'이 〈즐점 콘서트〉로 직원들을 찾아가다. 경영 상태가 악화된 소규모 기업 위주의 공연 운영으로, 사업주와 직원이 함께 공연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한다. 업무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또는 식후중 희망 시간에 사업장으로 전문 공연 단체가 찾아가다. 중소기업·소상공기업이면 누구나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당 공연 한 개만 신청 가능하다. 대중음악, 마술, 클래식, 국악 등 점심 분위기와 어울리는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 공연 단체가 준비되어 있다. 전문 공연 단체 전원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 또는 도시락 제공이 가능한 기업체를 우선 선정한다. 이번 기회로 사업주와 직원들의 축 처진 어깨 위 짐을 잠시 내려두고, 맛있는 점심과 〈즐점 콘서트〉로 스트레스를 날려보는 것은 어떨까?

예고 없이 화성시 어딘가에서 '2020 찾아가는 공연장'의 게릴라 버스킹이 시작된다. 일명 〈숨은 찾·공 찾가〉는 소규모 게릴라 공연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연 날짜를 제외한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공개하지 않는다. 기존 '찾아가는 공연장'이 운영된 적 없는 장소에서 공연할 예정이며, 찾아오지 못한 관객들을 위해 아티스트 사진 및 영상, 라이브 방송 등을 화성시문화재단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시민들은 SNS에서 장소 힌트를 얻어 공연을 찾아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2020 찾아가는 공연장'은 올해 초 공개모집에 지원한 약 180개 전문 공연 단체 중 서류, 영상 심사 및 현장 오디션 등을 통해 선정된 50개 단체가 대중음악부터 마술, 국악 등 다양한 장르로 화성 시민을 만날 예정이다. 화성시문화재단 SNS를 구독하고 공개된 공연 날짜에 맞추어 〈숨은 찾·공 찾가〉를 즐겨보자.

접수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hcf.or.kr
문의 시민문화팀 031 290 4635, 4636

문의 시민문화팀 031 290 4635

축제, 이제는 온라인에서 만나자
〈합 페스티벌 HAP Festival〉



축제사무국이 민들레마을에 전한 희망
코로나19 극복 위한 문화품앗이 일손 돕기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우리는 큰 변화의 지점을 맞이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좁혀질 전망이지만 취소된 공연과 연기된 행사는 좀처럼 다시 기회를 잡기 어렵다. 때문에 창작자들은 다양한 방법의 비대면 예술활동을 고민하고 있다. 모이지 않고도 충분히 즐거운, 온라인 축제 〈합 페스티벌〉을 소개한다. 화성에서 다 함께 '합:숨'이라는 의미와 'Hwaseong And People'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페스티벌은 온라인을 활용한 예술유통 플랫폼을 개발해 새로운 공연, 전시, 축제의 대안 공간을 제공한다. 홈페이지에서는 취소된 공연의 리허설 영상, 전시 작품의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 창작자의 작업실 공개 등 다양한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영상은 공모를 통해 모집하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예술가도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인 콘텐츠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

문의 축제기획팀 031 290 4615

본격적인 축제 시즌과 영농철을 맞이한 계절, 코로나19 여파로 장기화되어 가는 축제 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문화예술인들의 경제 활동 위축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성시문화재단 축제사무국이 앞장서 지난 4월 24일 하루 동안 '문화품앗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축제사무국 임직원들과 관내 예술활동가들은 민들레마을(화성시 우정읍 이화리)에서 문화예술 공간 및 소극장 환경 개선을 위해 그동안 창고에 쌓아온 무대 소품, 각종 기자재 등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등 작지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민들레마을은 2007년 처음 시작되어 화성시 서남부권의 대표적인 공연예술 축제가 된 〈화성시 품앗이공연예술축제〉가 매년 열리는 곳이다. 민들레마을은 코로나19로 지역 축제가 연기되고 농번기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지역의 문화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준 화성시문화재단에 감사사를 전했다.

문의 축제2팀 031 290 4622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화성독립운동아카이브 공개



이제 누구나 화성 독립운동사를 온라인으로 한눈에 볼 수 있다.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이 화성독립운동아카이브archive.jeam.or.kr를 지난 4월 공개했기 때문이다. 화성독립운동아카이브는 독립운동가 후손 및 지역 주민에게서 기증·기탁받거나 구매, 수집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정리 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아카이브를 통해 그동안 기념관을 직접 가야만 볼 수 있던 자료를 모바일과 PC로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화성시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근현대사를 담은 자료도 볼 수 있어 화성의 역사가 궁금하던 화성시 민들에게는 기본 소식이 될 것이다. 문서, 도서, 사진, 영상, 박물류 등 소장 기록과 주제별 컬렉션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정보 사전을 통해 화성 독립운동가 정보와 사건 정보를 살펴볼 수 있고, 기록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편리하다. 관련 사항 및 자료 기증 문의는 전화로 가능하다.

문의 독립운동문화팀 031 366 1604
자료 기증 문의 070 8892 9217

화성시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새 출발
제부도아트파크JAP 운영 주체 공모

기적의 섬, 시간의 섬으로 알려진 제부도의 자연해안선 앞 문화예술 플랫폼인 '제부도아트파크'의 운영 주체를 공모한다. 2016년부터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해 온 제부도아트파크는 자연과 문화, 역사 자원의 보존 및 계승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는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해 왔다. 2020년 화성시문화재단으로 운영이 이관되며 새로운 출발을 앞둔 제부도아트파크는 올해 3~4월 시설 준비를 마쳤으며 5월, 운영 주체 공모를 시작한다. 사업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단체 한 곳을 선정해 8,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부도아트파크가 서해안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거점으로 바다를 보며 즐기는 전시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문의 지역문화팀 031 290 4691

당신이 크리에이티브함을 마구 뽐낼 기회
화성시문화재단 서포터즈 3기
'영상 크리에이터' 모집

화성시문화재단은 오는 6월, 서포터즈 3기 영상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 영상 촬영 및 편집 기술이 있거나 기획 혹은 영상에 출연하며 나의 끼를 마음껏 뽐내고 싶은 20~30대에게 최적의 기회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축제, 공연, 전시, 문화사업 등 화성시문화재단의 대표 행사들에 참여하며 현장감과 재미도 느낄 수 있다. 크리에이터들은 화성시문화재단과 관련한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며 촬영, 제작, 편집하는 활동을 통해 재단 홍보를 지원한다. 재단은 크리에이터에게 전문가의 멘토링, 교육 등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과 제작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 및 정확한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기획홍보팀 031 8015 8115

화성시문화재단이 전하는 이야기

몸을 움크리고 살랑이는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가장 예쁜 계절, 봄을 느낄 새도 없이 떠나 보내고 있는 지금입니다.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열심히 준비해 온 사업들을 아쉬움과 함께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문화재단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희망과 용기를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창작 활동이 중단된 지역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공연 및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인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도 화성 시민들의 문화 공백을 채울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타바타 운동법’을 제공하고, 캐리커처와 유화 등 화성문예아카데미의 인기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또, 아직 만나보지 못한 ‘찾아가는 공연장’에 선발된 아티스트들의 새로운 공연 무대뿐 아니라 무대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공개하는 등 시민들의 문화 향유가 일상 속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시민들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동탄북합문화센터 내 스포츠 시설 정비 및 노후 장비 교체, 반석아트홀 로비 공사 등 재정비 시간도 가졌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다양한 시도로 어려운 시기를 문화예술로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마음 편히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앞으로도 화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 찾아가는 공연장



문화품앗이

《화분》 45호를 만든 사람들



허명범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을 맞이하는 세상은 근심과 걱정이 앞서요. 문화예술 현장에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 관객 공연과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가 대안으로 시도되고 있죠. 딱딱하고 힘든 일상에 《화분》이 소소한 즐거움을 주길...

차영은

이번 호부터 화분 담당자가 되었어요. 시작하는 설렘도 있지만 그 보다는 많은 프로그램이 연기, 취소되어 소개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크네요. 어서 다양한 사업들이 재개되어 재미있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길 바라요.

차유나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자 작업하고 있어요. 화성시문화재단 유튜브 많은 구독 바랍니다!

김채은

이번 주말엔 집에서 'PLAY' 기사 작성 겸 다양한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 좋은 점도 있지만, 하루빨리 안정화되어 마음 놓고 나들이 갈 수 있는 날이 찾아오면 좋겠어요.

이다은

집 안에만 머무르다 보니 봄이 훌쩍 가버렸어요. 왠지 좀 허무하지만, 일상을 즐겁게 하는 요소는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음악! 이번에 화성에서 만난 예술가는 재즈 피아니스트예요. 잠깐이라도 재즈를 들으며 답답한 마음을 잊어보려고 해요.

이주연

집 안에 오도카니 앉아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창문을 달아도 계절은 오고 두 눈을 감아도 진달래는 붉고~" 산책도 쉽지 않은 이 시절을 지나면서, 어쩌면 코로나19는 자연을 돌보지 않은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아닌가 생각해보기도 했어요. 본래의 생활을 되찾으면 오늘을 생각하며 자연을 좀더 애뜻하게 품어줘야겠어요. 텀블러 사용보다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보려고요!

김지수

코로나19로 모두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생긴 요즘이에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답답해진 마음이 화성의 공간을 둘러보며 자유로워지길.

윤원정

이번 호의 주제는 HOME이에요. 누군가의 공간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인다고 해요. 이번 《화분》 45호를 통해 제 공간을 살펴 보았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다음 주제는 무엇이 될까 궁금하네요!

《화분》은 아래 장소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장소에 《화분》을 놓아두시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문의 031 8015 8112

화성시문화재단 운영시설

- 동탄북합문화센터
- 화성시미디어센터
- 화성시생활문화센터
-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 만세길방문자센터
- 화성아트홀
- 반석아트홀
- 누림아트홀

도서관

- 남양도서관
-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 동탄목동이음터도서관
-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 봉담도서관
- 병점도서관
- 삼괴도서관
- 송산도서관
- 송린이음터도서관
- 정남도서관
- 진안도서관
- 태안도서관

작은 도서관

- 샘내작은도서관
- 기아행복마루도서관
- 비봉작은도서관
- 마도작은도서관
- 팔탄작은도서관
- 양감작은도서관
- 호수나래작은도서관

문화시설

- 노작홍사용문학관
- 로얄앤컴퍼니 아울렛
- 모두누림센터
- 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
- 소다미술관
- 엄미술관
- 유앤아이센터
-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카페

- 다락
- 다원
- 달팽이그림책카페
- 손커피연구소
- 차마시는들
- 카페 그루비
- 에데니코 커피 로스터스

호텔

- 라비돌리조트
- 푸르미르호텔

기타

- 독립서점 모모책방

온라인 구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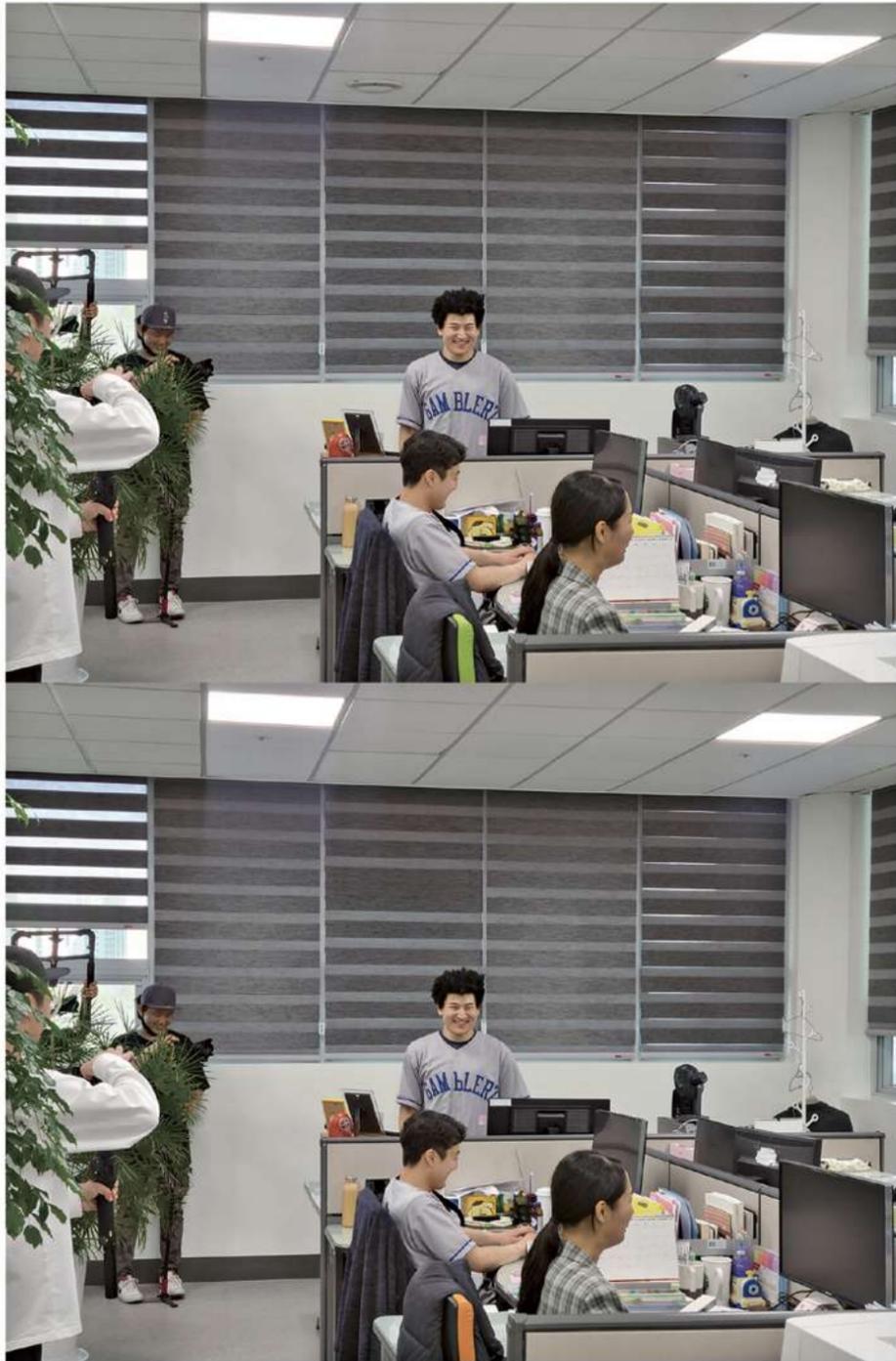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무가지입니다. 개인 구독자를 위한 배송 서비스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배포처 방문 또는 온라인 구독 부탁드립니다.

EVENT

틀린그림찾기

총 5개의 틀린부분을 찾아주세요!



다음 사진에서 다른 점 **5개**를 찾아주세요! 5개를 다 찾으면 후,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매거진화분](#) [#틀린그림찾기이벤트](#)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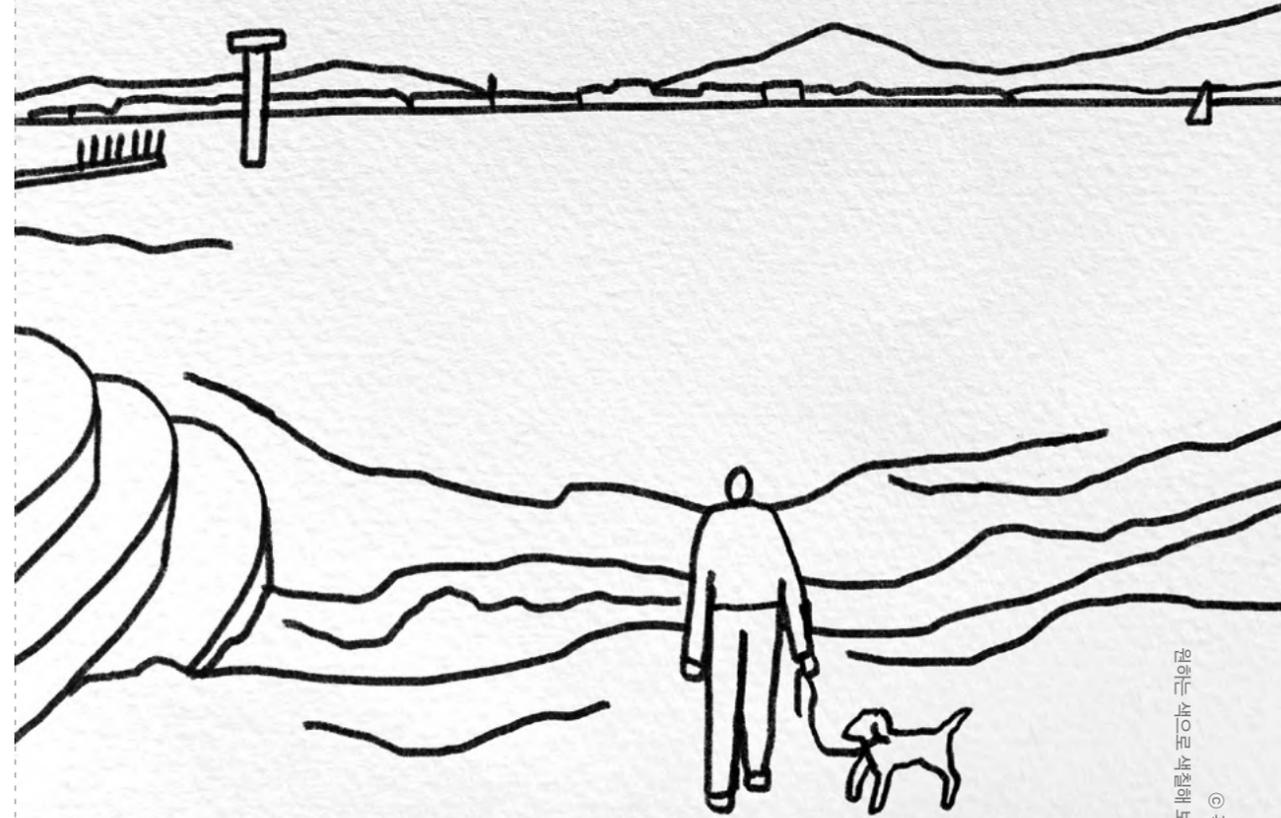
이벤트 기간 : 2020.6.30 까지



집에서 즐기는 문화가이드

화성시문화재단

검색창에 **화성시문화재단** 또는 **hcfart** 를 검색하세요!



© 권영주
원하는 색으로 색칠해 보세요.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20.06.01-2021.05.31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북합문문화센터 3층
경영기획국 기획홍보팀 《화분》 담당자

1 8 4 5 9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문화매거진 《화분》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엽서에 적어서 보내주신 내용은 더 좋은 《화분》을 만드는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1.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2. 이번 호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3.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4.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또는 《화분》 편집부에 전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VOL.45 HOME | 2020 MAY & JUNE
문화를 담은 빛나는 그릇

| | |
|--------|-----------------------|
| 발행처 | (재)화성시문화재단 |
| 발행인 | 최형은 |
| 편집국장 | 서관석 |
| 편집팀장 | 허명범 |
| 기획·편집 | 차영은, (주)아라운드 |
| 디자인·인쇄 | (주)아라운드 |
| 홈페이지 | hcf.or.kr |
| 주소 | 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
| 전화 | 031 8015 8112 |
| 팩스 | 031 8015 8129 |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격월간 문화·예술 교양지입니다. 화성시 내외의 다양한 문화와 시민 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담은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화분》에 게재된 글과 원고는 화성시문화재단의 허 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본지에 수록된 일부 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화분》은 재생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친환경지인 그린라이프지를 사용합니다.

04
PIECE
화성의 한 조각

10
INTERVIEW
피어니스트 다움

34
FEATURE
방구석 문화 데이트

60
PEOPLE
화성인의 대담 화성인의 그림